

식탁을 통한 가족공동체 목회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혜숙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Hyesook Ki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FAMILY COMMUNITY MINISTRY THROUGH THE MEAL TABLE**

Hyesook Kim

Live the Story, Seoul

Family was the core of God's creation plan. The creation of humans was the creation of the family, and the expansion of the family was the root, stem, and fruit of God's planned creation history. The family, which still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human history, is both a problem and a solution to human life. In this sense, the recent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is not a simple sociological problem or malady. This is a crisis for humanity. Furthermore, the crisis of the family, which forms and preserves the essence of fait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crisis of faith.

When we think of family, we naturally think of biological family with whom we share blood. This sense of family must be part of the mystery of creation. However, the family that God intends goes beyond this boundary. As we will discuss in the text, God's understanding of family is so vast that we cannot follow it with our narrow thoughts. Restoring this family should be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family community ministry. This study finds its significance in restoring the family archetype for family community ministry and aims to focus on the meal table of the family community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purpose. The meal table occupies a central position in the

creation story, in the relationships and roles of family, and in the entire history of rebellion against God and salva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theological meaning of the family community meal table. We will attempt to reconsider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meal table by studying the process by which the community gathers around the meal table and maintains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e meal table. And we will present food stories from the Bible for family community ministry. Focusing on important meal tables that appear in the history of the Bible, we will propose a learning method to remember and put into practice God's story by replacing the food of that time with the food that can be rediscovered on today's meal table.

## 국문초록

### 식탁을 통한 가족공동체 목회

김혜숙

리브더스토리, 서울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핵심이었다. 인간의 창조는 가족의 창조였고 가족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역사의 뿌리요 줄기요 열매였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은 인간 삶의 문제이자 해결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가족의 해체 또는 와해는 단순한 사회학적 문제나 병폐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위기이다.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가족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로 직결된다. 일인 가족의 증가, 혼밥 또는 혼식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물론 가족을 떠 올릴 때 우리는 피를 나눈 생물학적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이 가족은 창조의 신비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족은 이 범위를 초월한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가족 이해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바로 이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가족공동체목회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공동체목회를 위한 가족원형의 회복에 그 의의를 찾는다. 본 연구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의 식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식탁은 창조 이야기에서 가족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하

나눔에 대한 거역과 구원의 역사 전과정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공동체 식탁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가 식탁을 중심으로 모이고 식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을 연구하여 식탁의 가치와 의미의 재고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공동체 목회를 위한 성경의 음식 이야기를 제시 할 것이다.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식탁을 중심으로 당시의 음식과 오늘의 식탁에서 재발견 할 수 있는 음식을 대체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학습의 방법을 제안해 볼 것이다.

## 목차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가족식탁을 통한 가족공동체목회 .....	4
	가족공동체 목회 .....	4
	가족식탁 목회 .....	7
III.	가족공동체 목회를 위한 성경식탁이야기 .....	14
	구원의 음식: 무교병-주먹밥 .....	15
	기억의 음식: 쓴나물-아채튀김 .....	18
	사명의 음식: 물고기-생선까스 .....	22
	화해의 음식: 송아지-스파게티 미트볼 .....	25
	소망의 음식: 포도주-매실차 .....	30
IV.	결론 .....	35
	요약 및 평가 .....	35
	제언과 결언 .....	37
	참고문헌 .....	39
	부록: Passover Haggadah with Healpeople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핵심이었다. 인간의 창조는 가족의 창조였고 가족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역사의 뿌리요 줄기요 열매였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은 인간 삶의 문제이자 해결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가족의 해체 또는 와해는 단순한 사회학적 문제나 병폐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위기이다.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가족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로 직결된다. 일인 가족의 증가, 혼밥 또는 혼식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sup>1</sup>라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땅과 자손은 가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가족을 떠 올릴 때 우리는 피를 나눈 생물학적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이 가족은 창조의 신비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족은 이 범위를 초월한다. 월터 바우어(Walter Bauer)가 정의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다.

- (1) 사람이 거하는 건물로서의 집(house)으로, 큰 집을 가리키기도 하며, 간혹 도시를 말할 때도 쓰인다.
- (2) 가족(household, family)의 의미로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
- (3) 넓은 의미로 한 조상을 둔 씨족이나 지파로도 사용된다.
- (4) 집안에 포함된 재산이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sup>

---

<sup>1</sup> 창세기 2:18.

<sup>2</sup> Wa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or Arndt, William F. & Gingrich F. Wilb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60-61.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가족 이해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바로 이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가족공동체목회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사실 공동체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Stanly J. Grenz 는

“공동체”는 오늘날 사고에 적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에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학을 위한 통합적 주제로 중요하다. 성경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태초의 에덴동산에 관한 이야기들로부터 성경 이야기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새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흰 옷입은 무리들에 관한 비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드라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전체로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의미에서의 공동체-새로워진 피조 세계 안에 살면서 그들을 구속하신 분의 임재를 누리는 화해된 백성-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다.<sup>3</sup>

본 연구는 가족공동체목회를 위한 가족원형의 회복에 그 의의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며 그 가족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존재의미가 되어야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의 식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식탁은 창조 이야기에서 가족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구원의 역사 전과정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II 장에서는 가족공동체 식탁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가 식탁을 중심으로 모이고 식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는 과정을 연구하여 식탁의 가치와 의미의 재고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III 장에서는

<sup>3</sup>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61.

가족공동체 목회를 위한 성경의 음식 이야기를 제시 할 것이다.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식탁을 중심으로 당시의 음식과 오늘의 식탁에서 재발견 할 수 있는 음식을 대체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학습의 방법을 제안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가족공동체 목회의 실천적 과제가 될 식탁의 완성을 위해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이를 나누는 실제적 과정을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할 것이다.

## II. 가족식탁을 통한 가족공동체목회

주일학교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와 제도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사실 산업사회의 등장과 공교육의 제도화는 교육만능주의와 함께 학습은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간주되어왔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영래가 밝히듯 “1780년 영국의 빈민가 글로스터(Glooucester)에서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 신문발행인이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와 토마스 스톡(Thomas Stock) 목사가 시작한 주일학교는(Sunday School)은 오늘날 교회학교(주일학교)의 기원이 되었다.”<sup>4</sup> 2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주일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가히 충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 보고한 김영래의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일학교를 없애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결코 이들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 교회들은 가정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성경적 가정신앙교육을 복원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사실 성경에서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했다. 히브리 가정에서 가장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칠 의무를 갖고 있었다. 특별히 유월절 식탁에서 가장은 음식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켰다. 때문에 주일학교를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신앙교육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가족공동체 목회란 교회 즉, 신앙공동체의 사명 가운데 가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역은 가족을 사회와 영적

<sup>4</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180.

<sup>5</sup>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교회학교를 가정으로 보내다」 『국민일보』 2012.12.10.

발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며,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영적 지도를 제공하고, 다양한 필요와 삶의 단계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6</sup> 그러면 가족 공동체 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첫째, 가족공동체 목회는 개인의 삶의 과정의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족 공동체사역은 혼전 상담, 결혼 강화, 육아 수업, 한부모 또는 간병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한다. 그것은 각 단계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인식하고 관련성 있고 믿음에 기반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영적 형성을 도모한다. 이것은 가족에게 가족 헌신, 성경 연구, 기도 그룹 및 피정과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표는 믿음이 살고 공유되는 가정 환경을 육성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 공동체 목회에는 봉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봉사 프로젝트와 선교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더 넓은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연민, 관대함, 봉사의 가치를 심어준다.

넷째는 커뮤니티 연결 구축을 포함한다. 사회 행사, 지원 그룹 및 공동 예배를 통해 가족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족 공동체 사역은 교회 또는 종교 공동체 내의 가족들 사이에서 소속감과 지원을 촉진한다. 이러한 연결은

---

<sup>6</sup> 가족에 대하여 월터 바우어는 헬라어의 오이코스(*oikos*)에서 아래와 같이 그 의미를 발견한다. "(1) 사람이 거하는 건물로서의 집(*house*)으로, 큰 집을 가리키기도 하며, 간혹 도시를 말할 때 쓰인다. (2) 가족(*household, family*)의 미미로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 (3) 넓은 의미로 한 조상을 두 씨족이나 지파로도 사용된다. (4) 집안에 포함된 재산이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or Arndt, William F. & Gingrich F. Wilb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60-561.

중요한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앙의 공동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물질적 요구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가족 공동체 사역은 종종 식량 불안정, 주택,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가족의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 단체와 협력하거나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종교 공동체는 도전에 직면한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포용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가족 구조와 경험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역은 한부모, 혼합 가정, 입양 가정, 그리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원하여 모든 가족이 환영 받고 존중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7</sup>

가족공동체 목회의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첫째, 가족이 사회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사역은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정에 기여한다. 강하고 탄력적인 가족은 번창하는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둘째, 가족공동체는 영적 유산을 남긴다. 이 접근 방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과 가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종교적 전통의 연속성과 살아있는 신앙의 육성을 보장한다.

셋째, 가족공동체 목회는 전체적 지원을 통해 전인적/통전적 성장을 도모한다. 영적이고 실용적인 필요를 모두 해결하는 가족공동체 사역은 가족 생활의 다면적인 성격과 그 도전을 인식하는 전체적인 보살핌 모델을 제공한다.

---

<sup>7</sup> Diana R. Garland,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369.

요약하자면, 가족공동체 목회는 신앙과 외향에 깊이 뿌리를 둔 방식으로 가족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종교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삶에서 가족이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별 가족의 복지가 전체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이해에 대한 증거이다.

가정신양교육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생업, 학업, 가정사정 등 무수한 요소들이 가정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심지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산다고 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의 대소사나 명절에 되어야 간신히 가족 식탁이 마련되는 경우도 드문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가족식탁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성경은 가족 식탁에서 시작하여 가족식탁으로 마무리짓는 식탁의 이야기이다. 때문에 가족 식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사명인 셈이다. 가족 식탁의 복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과 신념을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왜 식탁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고 하셨다. 이는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동산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물을 생명유지를 위한 요소로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는 단순한 소비나 파괴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신의 일부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이 우리의 일부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식사는 단순한 생명유지의 수단만이 아니다. 식탁 위에는 만든 이의 사랑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 부른다. 관계는 창조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다면 하나님은 한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 이 관계의 복원을 위해 희생의 궁극적 형태인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두 식탁 위에서 시작되고 식탁에서 마무리 된다.

식탁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 Norman Wirzba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천국은 친교와 진정한 친밀함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모든 창조주와 구성원들이 성취와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천국에서 식사가 있을 경우, 그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생에서 정의롭고 화해된 성찬 식사가 가능한 한,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미리 맛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되시는 완전하고 완전한 친교 생활로 꾸준히 깊어지고 확장되는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8</sup>

천국에서까지 식탁이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영속적 관계의 지속적 확인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친교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의미를 생산해낼 수 없다. 그래서 Wirzba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일어나는 나눔과 친교인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로고스와 세상에서 그분의 사려 깊고 자비로운 존재 방식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의 결과이다.<sup>9</sup> 바울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회원 자격을 통해

<sup>8</sup> Norman Wirzba, *Food and Faith: A Theology of Ea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43.

<sup>9</sup> Howard A. Snyder 는 성령의 친교 안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1)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령이 주시는 신자들의 사귄이다. (2)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귄이다. (3) 사도행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귄이다. (4) 성령의 친교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친교를 미리 맛보여 주는 지상에서의 모형이다. (6)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동일성과 사귄 그리고 상호 교통하심과 흡사하다.” 고 했다.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01-102.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통적이고 참여적인 행사이다.”<sup>10</sup> “매일의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함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식량 생산과 소비의 경제에서 그들은 죽음보다는 삶을 증언해야 한다.”<sup>11</sup>고 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역시 가족의 식탁처럼 평범한 일상의 일부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 식탁이 성만찬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과 평범의 이분법의 성경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다. 우리의 일상을 성스러운 삶으로 만들려고 해야 하고 성스러운 삶의 일상성을 회복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Wirzba 는 “성만찬의 의식화된 성격은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만찬이 식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영감과 힘과 자양분을 얻기 위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초대 교회의 증거는 추종자들의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자주 함께 식사했으며,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방식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음을 암시한다.”<sup>12</sup> 고 했던 것이다. 이를 John Howard Yoder 는 “예수께서 그날 저녁을 축복하시고 기념으로 삼으신 식사는 그들이 몸을 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sup>13</sup>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의 절정의 전주곡이었지만 어찌 보면 하루를 힘들게 보낸 제자들의 배를 채워 주시기 위한 그리고 가족됨의 어김없는 확인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sup>10</sup> Ibid., 152-53.

<sup>11</sup> Ibid.,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충만의 생명이시라면, 성찬례는 그분이 가능하게 하신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양식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심이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분의 치유와 세상과의 화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식사 전반을 변화시켜 핵심적으로 환대하고 삶의 친교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의식 행위이다.” 148-49.

<sup>12</sup> Ibid., 149-150.

<sup>13</sup> John Howard Yoder, *Body Politics: Five Practices of the Christian Community before the Watching World*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2), 16.



왜 가족은 식탁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Wirzbs 는 일체성의 당위성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상적 사고가 아닐 지라도 신적 계획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존재의 과제이다.

먹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음식은 우리를 창조세계의 일원이자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사려 깊은 식사는 식탁 없이는 인간의 교제도 없고, 부엌 없이는 식탁도 없고, 정원 없이는 부엌도 없고, 생존 가능한 생태계 없이는 정원도 없고, 생명을 생산하는 힘 없이는 생태계도 없고, 근원 없는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음식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우리에게 삶의 구성원들의 범위와 성격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존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도전합니다.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공동의 삶의 투쟁과 기쁨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양육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도움과 양육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한, 우리가 공유하는 삶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은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sup>14</sup>

다시 말해 일상과 영성의 삶의 별개의 것이 아니다.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삶 속의 말과 행동이 영적인 삶의 반영과 구현이 아니라면 과연 내주하시는 성령의 실체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육신은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적 능력이 육신의 삶을 거룩한 형태로 변화하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일에 육신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실제적인 기회와 장소가 바로 식탁에서의 식사인 것이다. 그래서 Wirzba 는 “식사를 영적인 훈련으로 바꾸는 것은 음식과 세상이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과 습관(주의, 대화, 성찰, 감사, 정직한 회계)을 기르는 것이다.<sup>15</sup>” 라고 했던 것이다.

<sup>14</sup> Wirzba, *Food and Faith*, 34.

<sup>15</sup> *Ibid.*, 32.

가족을 보통 식구(食口)라고 표현할 때 이 말에는 밥을 먹는 입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밥 또는 빵은 생물학적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이면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엮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Wirzba 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company* 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함께를 의미하는 *com* 과 빵을 뜻하는 *panis* 의 합성어에서 왔음을 제시하면서 “눈에 보이고 향기로우며 촉각적인 따뜻한 빵의 존재는 나눔과 교제를 불러일으킨다.”<sup>16</sup>라고 했다. 빵 즉 밥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Wirzba 는 빵 한 덩어리가 가지는 이야기와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빵 한 덩어리에는 적어도 네 가지 주요 이야기나 역사가 담겨 있다. (1) 다양한 식물 성장, 효모 포자, 소금, 설탕 및 물을 생산하는 자연 과정에 대한 이야기 (2) 인간의 식물 재배, 곡물과 열에 대한 상당한 실험, 곡물 경제 발전에 관한 농업 이야기 (3) 사람들이 새롭고 잠재적으로 호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서식지와 서로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류 자체의 변화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서술 (4)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초점을 맞춘 신학적 서술이다.<sup>17</sup>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먹는 것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형성과 복원의 과정으로 이어짐을 돌아볼 때 빵과 밥을 나누는 식탁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가장 신적인 기회인 셈이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이 식구이어야 함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매일 식탁에서 식구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면서 자연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이 모든

<sup>16</sup> *Ibid.*, 312. Leon Kass 는 "인간은 빵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Leon R. Kass, *The Hungry Soul: Eating and Perfecting of Our N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122. Wirzba, *Food and Faith*, 12 에서 재인용.

<sup>17</sup> *Ibid.*, 12-13.

<sup>18</sup> “음식을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선언으로 받는 것은 신학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받는 것이다.” *Ibid.*, 11. “즉, 식사는 친교에 들어가고 서로 화해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식사하고 창조세계의 일원임을 기념하는 것이다.” *Ibid.*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고백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sup>19</sup>

그래서 Wirzba 는 우리에게 있어서 식사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식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발전시켜 그들의 식사가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아닌 성례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음식에 대한 사려 깊고 신학적인 관계는 먹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의 일원으로 들어가 매일 생명을 축복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라는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sup>20</sup>

그러므로 식사는 결코 사소한 행위일 수 없다. 식사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지속적 살기 위한 영적 활동인 것이다.<sup>21</sup>

초대교회가 가정의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Tim Chester 는 “식사는 사도 교회의 삶의 중심이었다…사도행전에서 모임을 갖는 유일한 지역 교회는 드로아 교회였다. 그들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사도행전 20:7; 또한 11 절 참조).” 고 했다.<sup>22</sup> 또한 Carolyn Osiek 와 David L. Balch 도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대부분의 집에서는 모임에 30~40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큰 집에서는 100 명 정도가 모여 식사를 할 수도 있었다.”<sup>23</sup>고 설명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동의어였다. 이에 대해 Tim Chester 는 “신약성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으로, 다른 구성원을

<sup>19</sup> “음식은 우리를 지구, 동료 생물, 사랑하는 사람 및 손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Ibid., 4.

<sup>20</sup> Ibid.

<sup>21</sup> Wirzba 는 “먹는 것은 한가하거나 사소한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죽음이기도 하다.” 고 했다. Ibid., 1.

<sup>22</sup> Tim Chester, *A Meal with Jesus: Discovering Grace, Community, and Mission around the Table* (Wheaton, IL: Crossway, 2011), 49-50.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6).

<sup>23</sup> Carolyn Osiek and Davi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Households and House Church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01-3. Ibid., 50 에서 재인용.

형제자매로 묘사한다. 교회 지도자는 가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가족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을 관리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sup>24</sup>고 했다.

---

<sup>24</sup> Chester, *A Meal with Jesus: Discovering Grace, Community, and Mission around the Table*, 50-51.

### III. 가족공동체 목회를 위한 성경식탁이야기

가족공동체 목회의 핵심과 정점은 가족 식탁에서 발견된다. 이 식탁의 전통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종 "아가페 식사" 또는 "사랑의 식사"라고 불리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식사 테이블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식사는 초기 기독교 예배와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회원들 사이에서 음식을 나누는 실용적인 수단이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합과 사랑의 상징적 표현 역할을 했다.

아가페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여하고 변화시킨 공동 식사의 유대인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최후의 만찬으로 기념하는 것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식사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 요소인 기독교 성체 또는 성찬식의 기초가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아가페 식사는 일반적으로 회원의 집이나 공동 모임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이 식사는 지역 사회, 환대 및 자선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강조를 반영하여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낮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 아가페 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들의 일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상징하며,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렸다.

식사는 초기 기독교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공동의 나눔과 친교를 반영하여 공유할 음식을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식사 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체성사에 참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독교가 더욱 공식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아가페 축제의 관행이 진화했다. 4세기까지,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건설됨에 따라, 아가페 축제는 성체 예배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결국, 아가페 축제는 뚜렷한 관행으로 희미해졌지만, 친교와 공동체 보살핌의 정신은 기독교 전통 내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다. 따라서 초대 교회의 식탁은 사랑, 공동체, 평등의 기초적인 기독교 원칙을 반영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문자적이고 은유적인 영양분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가족 식탁의 전통은 지금도 필요하면 앞으로도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가정신앙교육의 핵심인 가정 식탁의 복원을 위한 방법과 기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기초하여 근거를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족 식탁의 모형이자 모범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목회를 위한 음식을 유월절 식탁, 예수님의 식탁, 돌아 온 탕자에게 베푸는 식탁,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만찬의 식탁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물론 각 가정마다 또는 신앙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음식의 채택이 가능할 것이다. 단지 실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와 신학적 연관성을 모색하려는 창조적 시도의 한 예라고 생각한다.

- (1) 구원의 음식: 무교병-주먹밥
- (2) 기억의 음식: 쓴나물-야채튀김
- (3) 사명의 음식: 물고기-생선까스
- (4) 화해의 음식: 송아지-스파게티 미트볼
- (5) 소망의 음식: 포도주-매실차

첫 번째는 구원의 음식으로 부를 수 있는 유월절의 빵 무교병이다. 구원의 맥락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것은 순결,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깊은 관계를 상징하는 유대-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인 전통에서, 누룩 없는 빵 또는 마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의 핵심 요소이다. 토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 누룩 없는 빵을 구웠다(출애굽기 12:39).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시작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순결과 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유월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누룩 없는 빵은 성만찬에서 사용된 떡으로(누가복음 22:19), 우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누룩의 부재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죄가 없다는 믿음과 일치한다. 또한 기독교 예배 중에 누룩 없는 빵을 나누는 행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의식적인 표현이 된다. 유월절과 성만찬은 유대인이 준수한 옛 언약과 그리스도가 제정한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 역사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대인과 기독교의 맥락에서, "구원의 음식"으로서의 누룩 없는 빵은 깊은 신학적 중요성을 구현하며, 신자들을 그들의 영적 유산과 신앙의 기초 사건과 연결시킨다. 그것은 순결, 구원,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의 상징 역할을 한다.

## 주먹밥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62143>

## 재료

불고기 100g, 밥 2공기, 도시락 김 2봉지,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통깨 약간

1. 불고기는 센 불에 물기가 없도록 볶아 준비합니다.
2. 밥은 소금 약간을 뿌려 분량의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비벼 줘요.
3. 김을 부수어 비벼 줍니다.
4. 바닥에 밥을 넓게 펴 올려 준 후
5. 가운데 볶은 불고기를 넣고
6. 그 주위로 밥을 감싸 꼭꼭 뭉쳐 줍니다.<sup>25</sup>

---

<sup>25</sup>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62143>



## 음식이야기 1-주먹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기 위해 빵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 무교병이었다. 유월절에 먹는 '구원의 음식' 으로서의 누룩 없는 빵은 어린 시절의 주일 학교 선생님의 주먹밥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들이 흔히 주먹밥을 준비하고 먹을 때는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때 먹는 음식 메뉴이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안가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일 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를 위해 주일마다 항상 그 주먹밥을 준비해 주셨다. 주먹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매주 달라서 멸치맛, 김치맛, 계란맛, 김맛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었다. 따뜻한 쌀밥에 째조름한 주먹밥은 그 따뜻함과 함께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전도사님의 말씀까지도 이겨내며 졸리 운 눈을 비비며 주일 학교로 이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주일 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과 함께 한 주일 학교의 기억은 나의 인생 전체에 따뜻하게 사랑이 배어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단단히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앞서 언급된 각자 개인의 영적인 유산과 신앙의 기초적인 기억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의 상징 역할을 하는 큰 예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기억의 음식이 되었던 유월절 식탁의 쓴 나물이다. 쓴 나물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 유월절 식사(세데르)의 일부이다. 히브리어로 "마로르"로 알려진 이 허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노예 제도의 쓴맛을 기억하기 위해 쓴 허브를 먹는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유월절 기간 동안 소비된다. 이 관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식사의 일부로 쓴 허브를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토라에서 파생되었다(출애굽기 12:8).

쓴 나물이 상징한 것은 첫째, 고통의 기억이다. 쓴 나물을 먹는 주요 상징은 이집트의 노예 제도의 가혹함과 괴로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상들의 고통과

연결하고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는 가시적인 방법이다. 둘째, 쓴 나물을 먹는 행위는 또한 오늘날 불의와 억압을 겪는 사람들과의 공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상기시킨다. 셋째, 허브의 쓴맛은 자유의 단맛을 상징하는 샤로세트(과일, 견과류, 와인으로 만든 달콤한 페이스트)와 같은 다른 유월절 식사 요소의 단맛과 대조된다. 이 대조는 자유에 대한 인식과 억압에서 해방으로의 여정을 향상시킨다.

쓴 허브의 사용은 그리스도의 수난, 십자가 처형,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공명한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고난주간과 부활절 동안 다양한 전례 관행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게 한다. 유월절 식탁에서 발견되는 기억과 공감의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고통과 구속의 희망을 반영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쓴 허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고통의 보편적인 경험과 해방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억압에 직면한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상기시킨다. 쓴 허브를 먹는 것은 개인과 지역 사회가 고통을 영속시키는 부분과 고통을 완화하고 정의와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영적, 도덕적 성찰을 촉발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유월절 세더 동안 쓴 허브를 먹는 것은 노예 제도의 괴로움과 자유의 가치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에 대한 반성,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해방에 대한 감사를 장려한다. 유대인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이 관행은 또한 역사를 기억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열망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 야채튀김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847299>

## 재료

감자 1개, 고구마 1개, 당근 1/2개, 양파 1/2개, 주키니호박 1/3개, 가지 1/2개, 대파 1뿌리

## 부재료

밀가루 4스푼, 튀김가루 4스푼, 고구마전분(감자 전분) 4스푼, 식용유 1L

## 조리순서

STEP 1/14 필요한 재료들.

STEP 2/14 우선 감자부터 채썬다

너무 얇으면 부러질 수 있으니,

적당하게 나무젓가락의 가장 얇은 두께 정도?

STEP 3/14 다음 고구마도 채썬다.

STEP 4/14 감자와 고구마는 전분기가 빠지도록 찬물에 잠시 재워둔다.

STEP 5/14 주키니호박 채썰기

STEP 6/14 당근 채썰기

STEP 7/14 양파 채썰기  
 STEP 8/14 한꺼번에 물에 살짝 헹궈준 뒤  
 (감자, 고구마)도 함께 물기를 빼준다.  
 STEP 9/14 대파와 가지도 채썬다.  
 이 둘은 물에 헹궈줄 필요는 없다.  
 STEP 10/14 밀가루 : 감자전분(고구마전분) : 튀김가루 =1:1:1  
 질척 할 정도 물을 넣어준 뒤  
 얼음과 식용유 아주 약간 넣어준다.  
 튀김 반죽에 얼음을 넣으면 조금 더 바삭한 튀김요리가 완성된다.  
 STEP 11/14 이제 야채들과 반죽을 섞어줄 차례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넣어 간을 맞춰주고  
 STEP 12/14 모양은 야채가 11자 모양이 되도록. 한 열로 맞춰주고  
 크기는 취향 것  
 작은 국자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 걸 추천  
 STEP 13/14 이제 들어가라  
 반죽을 약간 넣은 뒤 기름 온도를 체크하고 투하  
 STEP 14/14 야채튀김은 굳이 두 번 튀길 필요 없으니  
 넉넉히 타지만 양도록 튀겨준다.<sup>26</sup>

## 음식이야기 2-야채 튀김

1990년대에 미국 목회를 시무하게 된 남편을 따라 참석하게 된 교회에서는 매년 가을 기금 모금을 위한 음식 바자회를 했었다.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팔아 교인 각 가정에서 준비한 홈메이드 음식들을 뷔페식으로 대접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기금 모금을 하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과의 교제를 통한 전도를 도모했던 행사였다.

요즈음은 한국 음식이 매우 유명해져서 웬만한 마켓에서도 김치나 라면 같은 음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시절까지만 해도 아시안 음식, 특히 한국 음식은 매우 생소한 음식 중 하나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그나마 덜 생소하게 접근할 수 있게 고민 끝에 야채 튀김을 준비했었다. 감자, 당근, 양파와 파를 채를

<sup>26</sup>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847299>

썰어 튀김가루 반죽에 묻혀 기름에 튀겨 만드는 야채 튀김이었다. 과만 제외하고는 다른 재료는 다른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야채들이고 닭튀김 같은 기름에 깊게 튀기는 요리 방법도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첫해엔 남겨진 음식 중 하나이고 그리 인기가 많지 않은 메뉴 중 하나였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한꺼번에 깊게 튀긴 음식은 그리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선뜻 내키지 않았던거 같다. 닭이나 고기류는 간혹 튀기는 음식을 먹지만 또 감자만 튀기는 프렌치프라이도 먹지만 그런 모습의 모든 야채 튀김은 매우 생소했었던 모양이었다. 매우 실망한 나에게 감자튀김 보다 깊은 맛이라고 아주 맛나다며 교인분들의 평가에 용기를 얻어 그 다음해도 다시 도전을 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모두 나의 야채 튀김을 좋아해 주시게 되어서 빨리 소진되는 음식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야채의 맛이 그 조리 방법과 배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어찌면 우리 갖고 있는 각자의 신앙이나 문화들에 서로 배타적이지만 말고 이해를 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음식이 된 물고기이다. 고기를 구워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한 장면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교제와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때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고 지시하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 이후, 해변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숯불 위에 구워진 물고기와 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신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시며,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 주신다. 물고기와 빵은 예수님의 공급과 돌봄을 상징하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부활하신 몸으로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심을 상징한다. 이는 물질적인 성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지는 교제의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 공급, 지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 생선까스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62748>

## 재료

가자미 등 흰 살 생선 1kg 구매

계란 4 개 구매

빵가루

밀가루중력분

소금

후추

## 조리순서

STEP 1/10 생선 가시를 잘 발라주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준 후 도마에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준다

STEP 2/10 바로 찬물(또는 얼음 물)에 넣어준다.

찬물에 넣음으로 생선의 탄력을 살려줄 수 있다.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

STEP 4/10 소금 후추를 뿌려 생선에 밀간을 해준다.

STEP 5/10 란 끈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잘 저어주고, 빵가루와 밀가루를 각각 준비한다.

STEP 6/10 생선을 밀가루에 잘 묻혀준다.

STEP 7/10 계란 물에 담가준다.

STEP 8/10 계란물을 입은 생선을 빵가루에 묻혀준다.

STEP 9/10 계란물을 입은 생선을 빵가루에 묻혀준다.

STEP 10/10 생선이 절반 이상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붓고, 중불로 가열한 후, 빵가루를 조금 떨어뜨려 기름 온도를 확인 후, 생선을 튀겨준다.<sup>27</sup>

### 음식이야기 3-생선가스

어떤 집사님께서 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한 교인분께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셔서 생선을 다 팔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에 못 오시고 그 생선들을 파시려고 가게문을 여신다고 한다. 그 교회 목사께서는 그 성도를 나무라거나 훈계하지 않았고 생선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주일 점심 메뉴로 그 생선들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생선이 남는 종류가 주마다 다르고 매운탕도 끓여보고 여러 가지 메뉴로 시도해 보다가 남은 생선을 포를 떠서 생선가스를 준비해 매주 주일날 교회 점심 메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매주 다른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가스를 먹는다는 것이다.

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것이 정말 사명의 음식이 된 물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성도님을 향한 목사님 모습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공급과 돌봄을,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한 물질적인 보살핌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매주 그 생선가스를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다.

네 번째는 화해의 음식으로 소고기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소를 잡아 잔치를 연다. 이때 소고기는 분명 화해의 음식의 역할을 한다. 누가복음(15: 11-32)에서 발견되는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가 용서와 하나님의

<sup>27</sup>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62748>



은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말한 가장 신랄한 비유 중 하나이다. 이 비유에서, 어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구하고, 무모한 삶을 낭비하고, 자비를 바라며 부끄러움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예상되는 처벌이나 거절 대신에,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한다.

아들의 귀환과 아버지와의 화해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조직하는 축제이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죽여라"고 말한다.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자.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길을 잃었고 발견되었다." 이 축제는 기독교 신학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상징한다:

첫째, 축제는 회개한 죄인(탕자)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나타낸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의 기쁨을 보여주며,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천국의 기쁨을 반영한다.

둘째, 축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의 상징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아들의 과거의 범법이 용서되고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잔치를 개최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의 귀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그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회복시킨다. 그 축제는 다른 사람들이 화해와 회복의 축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공동 행사이다.

넷째, 축제는 비유에 만연한 기쁨과 축하의 주제를 강조한다. 탕자의 귀환은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천국의 기쁨을 반영하는 축하의 이유이다.

"살이 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살진 송아지를 도살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위해 예약되었고, 아들의 귀환의 중요성과 아버지의 기쁨과 관대함의 정도를 강조했다. 이 비유는 축하 축제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회개의 중요성, 화해의 기쁨에 대해 가르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화해와 용서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귀환은 비난이 아닌 기쁨과 축하로 만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스파게티 미트볼



<https://www.10000recipe.com/recipe/4674643>

## 재료

스파게티 100g  
미트볼  
방울토마토 4 개  
양파  
토마토소스  
다진 마늘  
올리브유

## 조리순서

STEP 1/11 재료를 준비하기 전 스파게티면을 먼저 삶아 주세요 면을 삶을 때 소금을 굉장히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럼 면에 간이 배어 훨~씬 맛있어요  
STEP 2/11 7분정도 익힌 면은 건져내어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세요 절대 물에 헹구시면 안되요~ tip. 면을 다 익히시지 마시고 심지를 남기셔서 소스에 조금더 오래 끓여주시면 면에 소스가 배어 들어 더 맛있어요  
STEP 3/11 미트볼은 한입크기로 동글동글 만들어 주세요  
STEP 4/11 달군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불에서 미트볼을 속까지 익혀주세요  
STEP 5/11 다른 후래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STEP 6/11 다진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어주세요  
STEP 7/11 양파가 투명해지면 반으로 썬 방울토마토를 넣어 으깨 가면서 익혀주세요

STEP 8/11 토마토소스를 듬뿍 넣어주세요

STEP 9/11 익혀 놓은 미트볼을 넣어주세요

STEP 10/11 삶아 놓은 스파게티면을 넣어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Tip. 면 삶은 육수를 조금 넣어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STEP 11/11 부드러운 미트볼 속까지 토마토소스가 고루 베어 미트볼만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스파게티면 돌돌 말아 미트볼 하나 콕 찍어 함께 먹으니 너무 행복합니다.<sup>28</sup>

#### 음식이야기 4-스파게티와 미트볼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은 신학교 학생들에게 언어와 문화 체험의 훈련을 같이 해주고 싶다는 목사님의 사역의 은사를 대하고 매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학교 학생들 주를 이루는 그룹이라 영양도 신경써 주길 부탁하는 스승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음식이 스파게티와 미트볼이었다. 토마토소스를 베이스로 한 스파게티와 미트볼, 마늘 바게트 빵, 그리고 샐러드가 한 주 메뉴 세트였다. 그래도 좀 더 현지와 가까운 맛으로 대접하기 위해 미국 목회 때 배우게 된 레시피로 미트볼을 준비했었다. 90이 넘으신 크리스틴 할머니 성도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매주 주일 예배를 끝내고 갖는 다과와 친교의 시간에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쿠키와 케익을 직접 구워서 대접하시는 분이셨다.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행복해 보이셔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도와드리고 옆에서 함께 하면서 받게 된 크리스틴 할머니 비밀 레시피 중 하나였다. 대접 받는 신학생 중 어느 분이더라도 나중에 목회를 허락 받게 되시는 날이 와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되실 줄 믿고 기도 드리면서 준비했었다. 그러다 작년에 그 그룹 중 한 신학생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sup>28</sup> <https://www.10000recipe.com/recipe/4674643>

되셔서 시무하시는 미국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말씀 중에 그 스파게티와 미트볼을 언급하시며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이라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교회에 헌신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축제를 준비하시는 세상 최고의 행복한 일처럼 베푸시던 크리스틴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정말 그리웠다.

다섯 번째는 소망의 음식인 포도주이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와인에 대한 언급과 천국에서의 마지막 잔치의 이미지는 기독교 전통에서 깊이 상징적이며, 각각은 기독교 신앙과 종말론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가나에서의 결혼식은 요한복음(요한복음 2:1-11)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기록된 기적의 배경이며, 그곳에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이 행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풍부하다:

첫째, 가나에서의 기적은 예수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징으로 중요하며,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도록 이끌었다. 그것은 예수가 세상과 신자들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상징한다.

둘째, 예수님이 포도주와 우수한 품질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풍요와 관대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성취를 반영한다.

셋째, 포도주는 죄의 용서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린 예수의 피의 상징이다. 결혼식에서의 이 행위는 최후의 만찬과 새 언약의 설립을 예시하며,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종종 "어린양의 결혼 만찬"(요한계시록 19:6-9)이라고 불리는 천국의 마지막 축제의 이미지는 기독교 희망의 절정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요약한다.

첫째, 이 축제는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재결합을 상징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하나님의 어린양과의 영원한 연합을 축하한다.

둘째, 축제의 이미지는 죄, 죽음, 악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며,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의 즐거운 축하를 나타낸다. 그것은 궁극적인 구속과 모든 것의 회복을 축하하는 것이다.

셋째, 축제는 영원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한다. 그것은 신자들이 그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성취를 나타낸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과 천국에서 예상되는 마지막 잔치는 기독교 신앙의 주요 측면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궁극적인 희망.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관대함의 약속, 신성한 사랑의 성취, 그리고 신자들을 기다리는 즐거운 축하를 요약하며, 기독교의 구속, 변화, 영원한 기쁨의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

## 매실차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14283>

## 재료

청 매실 15kg

설탕 15kg

## 조리순서

STEP 1/12 매실청 담그기 돌입! 매실이 알이 굵진 않고 적당하더라고요.

물에 씻어건지고요.

STEP 2/12 저는 한번 씻은 후 매실 꼭지를 제거했어요.

STEP 3/12 그런 후 3번 더 씻어건지고요.

STEP 4/12 체에 걸러서 반나절 정도 그대로 두고 수분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보송한 게 아주 잘 말려졌더라고요.

STEP 5/12 커다란 통 준비하고요 설탕도 준비하고요.

STEP 6/12 매실 넣고

설탕 넣고

매실 넣고

설탕 넣고

STEP 7/12 쪼개어 넣고 뚜껑 덮고요.

STEP 8/12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완전히 밀폐를 하면 매실이 숙성되면서 가스가 차올라서 매실 병이 터질 염려가 있어요.

뚜껑은 살짝 열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뚜껑을 살짝 열어 두면 병이 터질 염려는 없더라고요.

통도 부족하고 저는 꼭꼭 눌러 담았어요. 며칠 뒤면 매실청에 설탕이 녹으면서 내용물이 훑 가라앉을 거예요.

STEP 9/12 이렇게 두통 그득 담아 올 매실청도 확보해 두었어요.

STEP 10/12 작년에 담근 매실청도 나란히 놓았어요.

이렇게 두고 나니 보조 주방이 저장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STEP 11/12 아침에 보니 매실청에 설탕이 많이 녹아있더라고요.

뚜껑 덮고 밀폐는 살짝 덜해서 이렇게 100 일 동안 숙성 후 매실 알갱이는 걸러낼 건데요.

중간에 설탕 가라앉은 것은 저어 설탕을 녹여줘야 해요.

저는 100 일 동안 3 번 정도 섞어주는 편입니다.

STEP 12/12 더운 여름날엔 얼음 동동 띄워서 매실차로 마시기도 하고요.

겨울엔 뜨끈하게 데워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매실청은 체했을 때 원액으로 마시면 소화제 역할도 합니다.<sup>29</sup>

## 음식이야기 5-매실차

한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이야기이다

이 목사님께서서는 교회 교인도 많지 않으시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매실을 재배하셔서 매실청이나 매실환을 만드셔서 교회의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목사님의 모습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이 떠올랐다. 세상적으론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다른 기쁨과 성취감을 보게 되었다. 정성스럽게 그 모든 것은 일을

<sup>29</sup> <https://www.10000recipe.com/recipe/6914283>



하시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사역자 분들에겐 약으로 드시게 베푸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분들이 입소문을 전해서 그 물건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많으셔서 재정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포도주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상징이듯이 교회를 위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에겐 한잔의 따뜻한 매실차에 가득 담겨있었다.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는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현대 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 공동체의 식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여 보았다.

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가장 내가 생각하는 식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준 글이 wizard가 언급한 글이다.

식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발전시켜 그들의 식사가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아닌 성례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음식에 대한 사려 깊고 신학적인 관계는 먹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의 일원으로 들어가 매일 생명을 축복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라는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sup>30</sup>

앞에 언급된 식사에 의미를 갖게 되는 식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은 그 식탁에 함께할 구성원들의 연령, 성향, 건강 상태 등 일 것이다. 각 가정에서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식탁, 교회, 지역사회 그 어떤 형태의 식탁이든 그렇게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여서 마련된 식탁을 준비해 함께한 구성원들에게서 더 깊은 감사를 발전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sup>30</sup> Wirzba, *Food and Faith*, 4.

이 연구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제로 여러 규모의 식탁들에 적용도 시켜보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하고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는 ‘감사가 넘치는 식탁’ 이었다. 이 같은 식탁에서는 음식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과 더불어 그 음식을 함께할 구성원들을 향한 사려 깊은 접근을 함으로써 그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며 맺어진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갖기 힘든 영적으로 많이 충만한 관계를 갖게 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는 그 계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식탁에서는 그 식탁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알게 된 구성원의 육체적 연약함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배려와 정성은 그 관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식탁에서는 구성원들의 할머니, 어머니의 숨겨진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교회에서 어르신인 권사님의 숨겨진 음식 레시피를 같이 요리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음식을 나누며 같이 기억하고 추억할 수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다른 세대 간의 갈등, 다른 문화와의 갈등, 다른 인종과의 갈등 등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갈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와 같이 먹는 것을 나누는 식탁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학적인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가족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했다, 매일 식탁에서 식구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자연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에 소중함으로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식사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생명유지의 수단만이 아니고 식탁위에는 만든 이의 사랑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구성원들의 하나 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가족 해체, 또는 와해는 이 사회에 매우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회학적 문제나 병폐로부터 발생된 문제로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의 위기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에 언급된 식사와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식사와 의미가 담겨지는 식탁의 연구의 중요성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나에겐 나의 가족만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공동체를 궁극적인 가족 공동체로 섬기며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할 식탁을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 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을 수 있는 식탁은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Norman Wiazbar는 말했다.

천국은 친교와 진정한 친밀감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모든 창조주와 구성원들이 성취와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천국에서 식사가 있을 경우, 그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생에서 정의롭고 화해된 성찬 식사가 가능한 한,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이 무엇인지 미리 맛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완전하고 완전한 친교 생활로 꾸준히 깊어지고 확장되는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31</sup>

---

<sup>31</sup> Ibid., 234.

식탁위에서의 관계를 통해 갖게 되는 친교를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Wiazbar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너무나 행보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한다.<sup>32</sup>

---

<sup>32</sup> 부록에 게재한 유월절식탁 예문 (Passover Haggadah)는 의료선교공동체 Healpeople 이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원문 그대로 제공한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기여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남긴다.

## 참고문헌

- Ayres, Jennifer, *Good Food: Grounded Practical Theolog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or Arndt, William F. & Gingrich F. Wilb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60-561.
- Bardin, Todd, *The Meals of Jesus: Finding Our Place at God's Missional Table* (Oviedo, FL: EA Books Publishing, 2014).
- Bauer, Wa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or Arndt, William F. & Gingrich F. Wilbu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60-61.
- Bausch, William J.,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ith* (Mystic, CT: Twenty-Third Publications, 1984).
- Braaten, Carl, *The Future of God The Revolutionary Dynamics of Hope*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 Bulgakov, Sergei, *Philosophy of Economy: The World as Househo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Carlozzi, Carl G., ed., *Prayers for Pastor & People* (New York, Church Publishing Incorporated, 1984).
- Chester, Tim, *A Meal with Jesus: Discovering Grace, Community, and Mission around the Table* (Wheaton, IL: Crossway, 2011).

- Colijn, Brenda B., "Family in the Bible: A Brief Survey," *Ashland Theological Journal* (2004): 73-84.
- Cox, Harvey G., *On Not Leaving It to the Snak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4).
- Cwiekowski, Frederic J., S.S., *The Beginnings of the Church* (New York: Paulist Press, 1988).
- Elwell, Walter A.,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1997).
- <http://www.biblestudytools.com/dictionaries/bakers-evangelical-dictionary/love-feast.html>. (2016년 9월 19일 접속).
- Fink, Peter E., S.J. ed., *The New Dictionary of Sacramental Worship* (Reference Works) (Collegeville, MI: The Liturgical Press, 1990).
- Fishel, Anne K., *Home for Dinner: Mixing Food, Fun, and Conversation for a Happier Family and Healthier Kids*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2015).
- Garland, Diana R.,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3).
- Harvey, Barry A., *Another City: An Ecclesiological Primer for a Post-Christian World*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 Heil, John Paul, *The Meal Scenes in Luke-Acts: An Audience-Oriented Approa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9).

Jones, Barry D., *Dwell: Life with God for the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4),

Jones, Barry D., “The Dinner Table as a Place of Connection, Brokenness, and Blessing,” *DTS Magazine* (October 1, 2015),  
<http://www.dts.edu/read/a-place-at-the-table-jones-barry/> (2016년 4월 22일 접속).

Lewis, C. S., *Mere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Collins, 2001).

Little, Sara, *To Set One's Hear: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83).

Morris, Leon,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58).

Pelikan, Jaroslav, *The Christian Tradition: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octrine*, vol. 2, *The Spirit of Eastern Christendom (600–17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eter J. Leithart, “Theology of Food and Feasting,” *First Things* (August 5, 2004),  
<http://www.firstthings.com/blogs/leithart/2004/08/theology-of-food-and-feasting>.  
 (2016년 8월 26일 접속).

Peterson, Eugene H., *Eat This Book*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Peterson, Eugene,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Pohl, Christine,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 Sandlin, P. Andrew, “A Lamb for a Household: A Theology of Family Salvation, <https://docsandlin.com/2014/04/27/a-lamb-for-a-household-a-theology-of-family-salvation/> (2016년 9월 19일 접속).
- Smith, Gordon, *A Holy Meal: The Lord’s Supper and the Life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Sobrino, Jon, *Jesus the Liberator: A Historical-theological Reading of Jesus of Nazareth* (Maryknoll, NY: Orbis Books, 1993).
- Stookey, Lawrence Hull, *Eucharist: Christ’s Feast of with the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 Strukova, Jana, *Kitchen Table Youth Ministry: Inviting God to Dinner*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10).
- Strukova, Jana, “Kitchen Table Youth Ministry: A Paradigm for Spiritual Formation of Youth,” *Practical Matters* 2 (2009): 1-16.
-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und and Identity is Form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15).
- Weinstein, Miriam, *The Surprising Power of Family Meals: How Eating Together Makes Us Smarter, Stronger, Healthier and Happier* (Hanover, NH: Steerforth Press, 2005).
- Wirzba, Norman, *Food and Faith: A Theology of Eat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교회학교를 가정으로 보내다」 『국민일보』

2012.12.10.

Healpeople  
Passover  
Haggadah



(유월절(逾越節)/넴김절 이야기)

A simplified Guide for Passover Seder

Healpeople  
힐피플



## 목 차 (Table of Contents)

1. 유월절 전례서 (Seder-Haggadah) 와 유월절 접시 (Seder Plate) 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the Seder-Haggadah, Seder Plate)
2. 촛불 켜기와 축복기도 (Shehechyanu) (Candle Lighting and Shehechyanu)
3. 카데시 - 축복 - 첫 번째 컵 (Kadesh - The Blessing - First Cup)
4. 카파스 - 파슬리 (Carpas - Parsley)
5. 가운데 무교병 (마짜)을 반으로 자르기 (Breaking the middle Matzah)
6. 아피코만 (Afikoman: 무교병의 가장 큰 조각)과 마짜 태쉬 (Matzah Tash)  
(3-in-1 bag)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Afikoman and Matzah Tash)
7. 4 개의 질문 (Four Questions)
8. 매기드 -말하기 (Magid - The Telling)
9. 두 번째 컵 채우기 - 마시지 않는다 (Fill Second Cup - Don't Drink)
10. 10 개의 역병 (Ten Plagues)
11. 다이에이누 (자유함으로 가는 한 발걸음을 경축함) (Dayeinu)
12. 왜 어린양, 무교병, 마로르, 하로셋인가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why Lamb, Matza, Maror and Charoset?)
13. 왜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기대어서 먹는가?  
(Why do we eat the Passover Meal reclining?)
14. 두번째 포도주를 마심 (Drink Second Cup of Wine)
15. 손씻음 (발을 씻는 것은 선택적으로) (Hand Washing - optional foot washing)
16. 어린양, 무교병, 쓴 나물을 먹는 축복 (Blessings for eating Lamb, Matza and Maror)
17. 힐렐 샌드위치 (Hillel Sandwich)
18. 저녁식사 (Dinner)
19. 아피코만 찾기 (Search for Afikoman)
20. 무교병과 세번째 컵-친교 (Matzah and Third Cup- Communion)
21. 할렐 -찬양 (Hallel - Praises)
22. 네 번째 컵 (Fourth Cup)
23.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Next Year in Jerusalem!)



**하가다 (Haggadah) :**

하가다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성경구절과 시 노래를 말합니다. ('너는 장차 이것을 너의 아들에게 말하리라...') 토라에 나오는 유월절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아이들의 노래를 더합니다. 이것은 유월절(넘김절)을 온 가족이 고대하는 절기로 만들게 됩니다. 즉 하가다는 유월절 축하의식에 대한 '안내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월절 쉼데르(잔치)를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26: 17). 바로 하가다에는 쉼데르(유월절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들어있고 유월절 의식에 행하는 모든 상징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쉼데르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며 쉼데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준비물:**

- 초 두자루 (축제의 촛대들 (안식일 용)), 특별한 컵, 마짜<sup>1</sup> 태쉬(무교병 주머니), 세마포 수건, 컵받침 or 티슈, 포도주,
- 무교병(마짜)<sup>1</sup>, 양고기<sup>2</sup>, 쓴나물<sup>3</sup> (양고추냉이; horseradish), 파슬리(parsley)나 셀러리(celery) 혹은 양상추, 하로셋<sup>4</sup>, 소금물,
- 삶은 달걀<sup>5</sup>, 선물<sup>6</sup>, 특별한 유월절 음식들<sup>7</sup>, 하가다(유월절 전례서)




---

<sup>1</sup> 유월절 기간에 먹는 빵을 "마짜"라고 하고 복수형으로 "마쭌트"라 한다. 이것은 순수한 밀가루를 반죽 시작 후 18분 이내에 불에 넣고 구워 낸 빵이다. 이 빵은 본래 직경 30센티미터의 원형이었으나 지금은 한 변이 10인치 정도인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다.

<sup>2</sup> 일 년 된 숫양의 고기와 정강이뼈 (러시아 유대인들은 닭을 사용)

<sup>3</sup> 한국에서는 썸바귀를 이용 할 수 있다.

<sup>4</sup> 만드는 법은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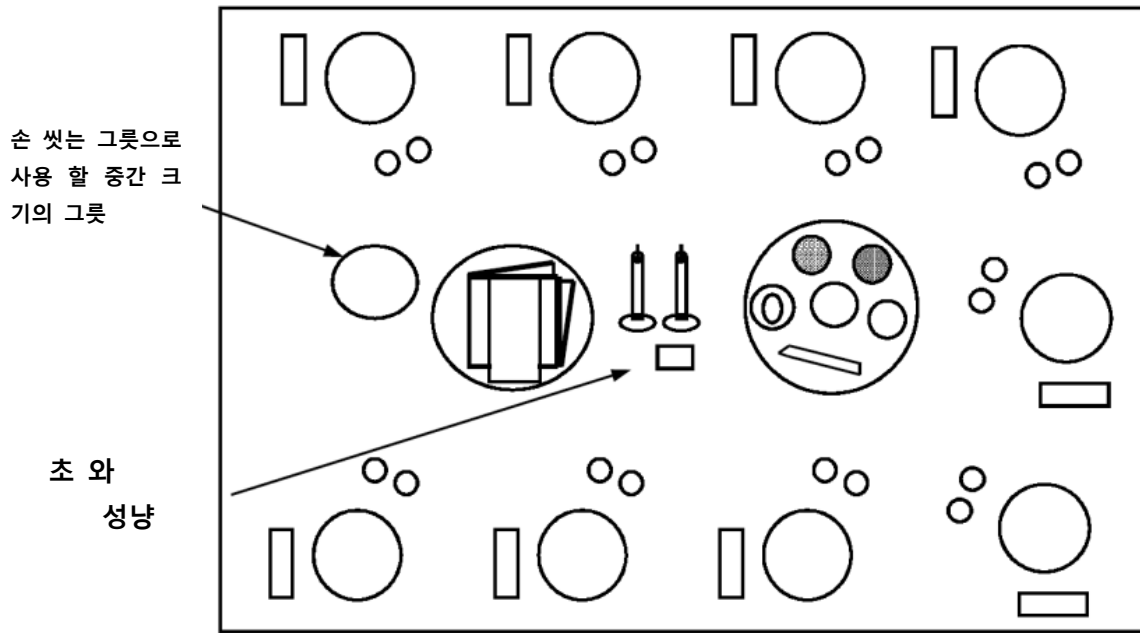
<sup>5</sup> 사용하기도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sup>6</sup> 아피코만을 찾은 아이에게 주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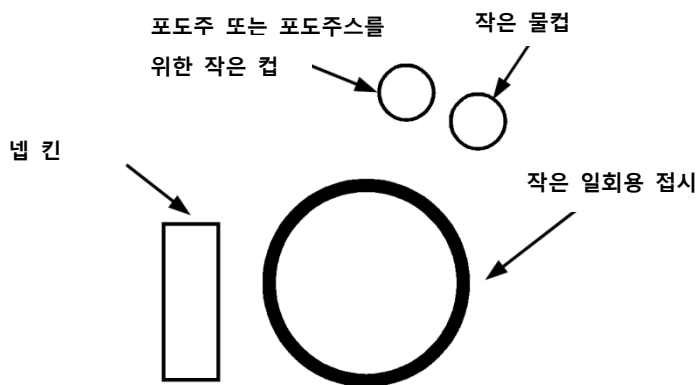
<sup>7</sup> 부록참조



유월절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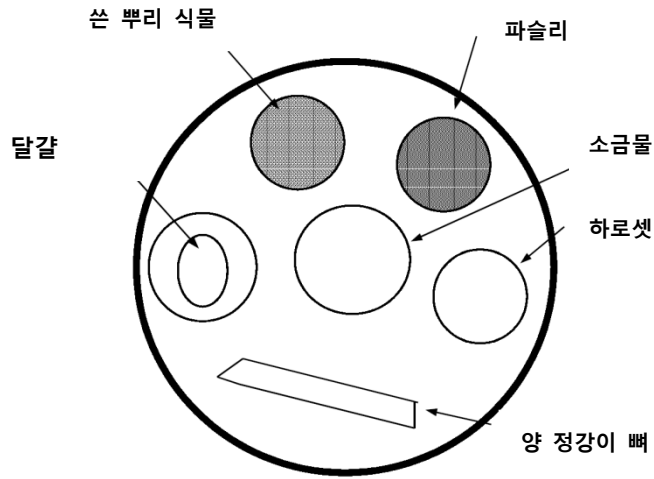


유월절 각자 앞에 놓인 식기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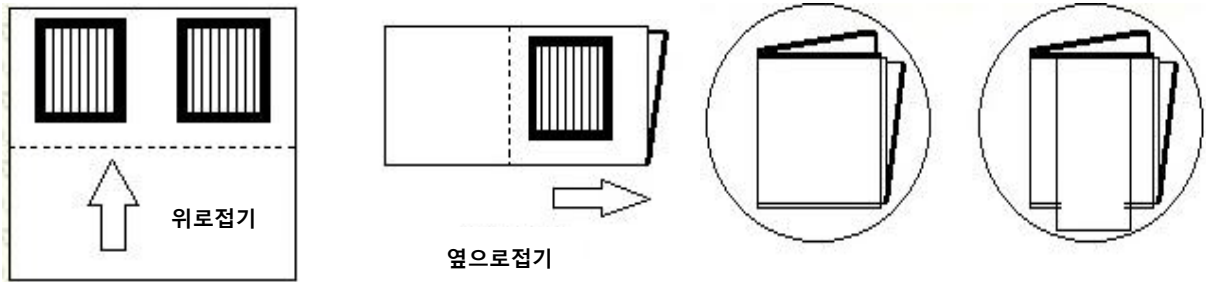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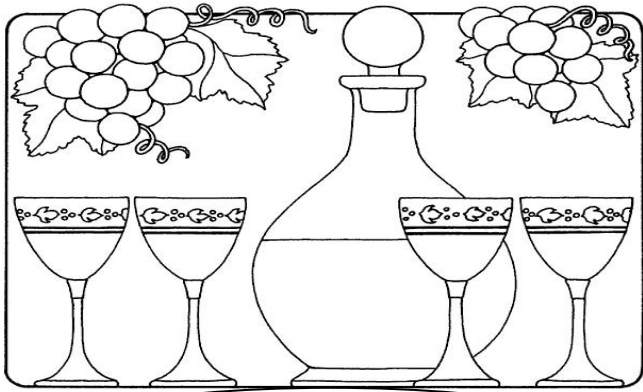
유월절 세데르 접시:



유월절 matzah 가방만들기:



등장인물: 사회자 또는 아버지(인도자), 어머니, 회중, 아이들



# Passover

유월절(Passover, 페싸흐 **פסח**)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13세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집트(미쯔라임)로부터 탈출하여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의 주된 주제는 자유(해방)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아빍)월 15일에 시작되며 칠일 동안을 명절로 지킵니다.<sup>8</sup> 보통은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있던 주간의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유월절준비는 절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2:15-20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집안과 사업장에서 누룩을 치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 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 어머니는 집안을 살살이 청소합니다. 특별히 부엌은 구석구석까지 혹 누룩이 들어 있는 음식이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합니다. 어머니의 청소가 끝나면 다음은 어린이들의 차례입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촛불을 켜 들고 다니며 침대 밑이나 옷장 뒤 등을 살핍니다. 혹시라도 누룩이 든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완전히 제거합니다.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씨리얼 부스러기 등이 없는지 살핍니다.

“왜 이와 같이 누룩을 제거하는 걸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악을 말살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예수님에 의하여도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Chameitz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1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한 교훈을 상징합니다.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현대인의 성경)에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무교병)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묵은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뒤에야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룩이 제거되면 유월절을 위한 식기나 그릇, 접시, 포크, 나이프 등을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월절에는 유월절을 위한 식기나 그릇 등을 따로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그릇들을 가보로 남겨 대대로 물려주면서 유월절에만 사용하기도 합니다.<sup>9</sup>

<sup>8</sup>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욘 토브(좋은 날)'라 부르며 이 날은 일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공휴일입니다. 중간의 5일간은 '홀 하 모에드(중간의 날들)'라 부르며 이 날엔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날들은 반 공휴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날은 정상 근무합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일 간을 명절로 지킵니다. 이들은 팔일 중의 처음의 이틀과 마지막의 이틀을 포함한 사일 간을 '욘 토브'로 지킵니다.

<sup>9</sup>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이 든 빵을 금할 뿐 아니라 일체의 통곡식(키트니웃)을 금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의 곡식을 일체 금합니다. 또한 유월절 기간의 칠일이나 팔일 동안 '카메츠'를 먹거나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집에 있는 모든 밀, 호밀, 보리, 귀리 등의 곡식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랍비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날 '카메츠'를 이웃의 이방인에게 팔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방인으로부터 사들입니다. 대부분의 회당은 회중들이 카메츠를 팔았다가 다시 살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 카메츠와 마찬가지로 '세오르'도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법이 곡식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발효되는 곡식만 금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발효하여 만든 포도주는 금지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식품은 마짜만이 허용됩니다.

'키트니웃'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곡식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이스라엘의 5대 곡식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쌀, 옥수수, 땅콩, 콩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카메츠'는 인공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된 밀, 호밀, 보리, 귀리, 맥아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세오르'는 곡식을 발효시키거나 발효를 돕는 모든 이스트나 그와 유사한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날은 유월절 기간 동안 금기되는 음식들을 태우는 것을 포함한 준비의식이 거행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인 마짜(무교병), 포도주,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뼈, 삶은 계란, 고센 땅에서의 흙벽돌 쌓는 작업을 연상 시키는 하로셋(진흙)소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졌을 때 이러한 절차를 따랐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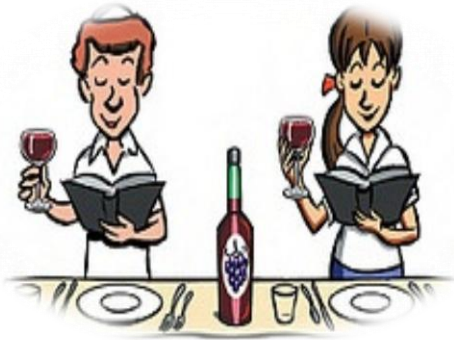
히브리어로 '세데르'라 불리는 유월절의 첫 날 저녁만찬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귀한 전통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해방된 것을 구체적으로 되새기며 기념하고 가족 전체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출애굽기 이야기를 담은 '하гада' 라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다면, 모임리더가 아버지가 담당하는 부분을 읽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역할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대략 세 시간 정도 진행되는 유월절 저녁식사 세데르<sup>10</sup>는 시간상으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 그 자리에서 현재화되는 독특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음식을 나누면서 여유 있게 진행 하는 저녁식사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슬픔을 회상하는 동시에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린 소망을 확인합니다. 우리 역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아(유대식 예수님 이름)께서 오셔서 유월절의 참된 어린양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셨는지를 영혼 깊이 알게 됩니다. 유월절 저녁에 진행되는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up>10</sup>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되는 유월절 만찬에 익숙하지 않았던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음식을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지도 못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배가 고프는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라는 충고를 받았다(고린도 전서 11장 34절)



## 1. 유월절 전례서 (Seder-Haggadah) 와 유월절 접시 (Seder Plate) 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the Seder-Haggadah, Seder Plate)



shalom! 유월절(넴김절) 세데르(유월절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밤의 식사는 다른 밤의 식사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밤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는 하가다(유월절 전례서)라 불리는 작은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세데르”는 히브리어로 “질서” 또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세데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밤 만찬에 특별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Shalom and welcome to our Seder. As you may know, this night and this meal or Seder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 nights and other meals. Tonight we celebrate the Passover. The order of tonight's service is in the Haggadah or the book of "Telling" of the Passover story. The word Seder means "Order" as this night has a special order. Everything has significance and each part of the meal tells more about who our God is, who we are and who we are together. I hope this night fills you with love, hope and life as we celebrate God's Passover.

여러분은 테이블에 유월절 접시(the Seder Plate) 라는 특별한 접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접시 위에 있는 각각의 음식은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서 각각 고유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각의 음식들은 특별한 순서에 따라 설명되고 난 후에 먹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에 어긋나서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팔을 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You will notice on the table there is a special plate or the Seder Plate. Each item on the plate tells a different part of our story. Each object will be described and eaten in a special order. Please do not eat out of order for we wish to build the story of how our God with an outstretched arm rescued us brought us up out of Egypt and into our Promise Land.

이제 초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아(예수님)께 대한 축복을 낭독함으로써 오늘밤을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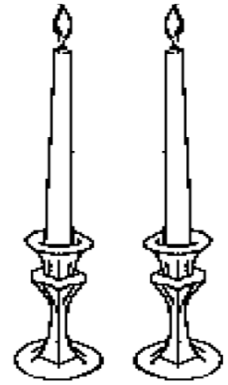
Now let us begin this night the way Jewish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begin this night by the lighting of candles and reciting the blessings to our God and Yeshua our Messiah.



2. 촛불 켜기 (Candle Lighting)

가정의 어머니가 두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합니다<sup>11</sup>:

“주 우리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로 우리를 축복하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출 12:14,27).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דשנו במצותיו וצונו להדליק נר של (שבת) יום טוב.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shanu bemitzvotav v"tzivanu l"hadlik ner shel (Shabbat) yom tov.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찌바누 레'하들리크 네르 쉘 (샤밧) 욘 토브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주님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위한 촛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by His commandments, and has commanded us to kindle the lights for (Shabbat) the Passover festival.

축복기도 : 쉘헤키야누 (Shehechyanu)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שהחיינו וקימנו והגיענו לזמן הזה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shehecheyanu v'ki'manu v'higianu la-zman ha-zeh.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쉘헤케이야누 베'키'마누 베'히기야누 라-즈만 하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시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ustained us, And kept us, and enabled us to reach this joyful season.

<sup>11</sup> 유월절은 초에 불을 켜면서 시작된다. 불을 켜는 역할은 보통 어머니가 맡는데, 이는 가정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인도자) 낭독합니다:

오늘밤 우리는 네 컵의 특별한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각 컵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며, 각각 정해진 특별한 시간에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기쁨을 상징하며, 또한 주님(여호와)을 기뻐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현재도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컵들을 채우고,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송축한 다음, 각각 컵들을 각각의 지정된 시간에 마시겠습니다.

Tonight we will have four special cups of wine. Each cup has a special name and is drunk at a special time. Wine always represents our Joy and how the Joy of the Lord was and is and will always be our strength. We will fill our cups, bless God and drink together each of the four cups at their appointed time.

각 컵의 이름은 출애굽기 6:6-7 에 나와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4 가지 약속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로 너희를 **구원**하고...내 백성으로 **모으리라**”

Each of these four cups are named after the four promise God made to us in Exodus 6:6-7 “I will save you from your bondage...I will deliver you from your burdens...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hand...I will gather you as My people.”

### 3. 카데시 - 축복 - 첫 번째 컵 (Kadesh - The Blessing - First Cup)

## *Kadeish*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borei p"ri ha-gafen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s the fruit of the vine

첫 번째 포도주 잔을 채웁니다.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복되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주님(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는 주님(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주님(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 하셨느니라”(출12:14, 27).

참석자들 모두:

그 때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2:12-13, 19, 3:6)

참석자들 모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더라” (눅22:14-15)

우레하쯔 (Urchatz: Washing Hands):

씻는다는 뜻인데 축복의 기도 없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카르파스를 먹기 위한 준비입니다.

# Urchatz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씻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유월절(페싸흐)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각자 물 한 컵을 자신의 두 손에 각각 세 번씩 부어 손을 씻습니다.



4. 카르파스 - 파슬리 (Carpas - Parsley)

# Karpas

“카르파스”는 잎이 있는 채소입니다. 우리는 카르파스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흘렸던 우리의 아버지들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짠맛은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오늘밤 우리는 단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노예로써 신음하였던 우리 삶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The Karpas is a leafy vegetable. We will take the Karpas and dip it into salt water. The salt water represents the tears of our fathers, whom cried out to God while they were slaves in Egypt. The saltiness is to remind us of our own tears which we have cried out to our Heavenly Father when we’ve needed a deliverer. Tonight we remind ourselves of not just Israel’s slavery in Egypt, but the times in our own life in which we were slaves.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אדמה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borei p"ri ha-adamah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ינו 멜렉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아다마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s the fruit of the earth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땅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다.



5. 가운데 있는 마짜(무교병) 반으로 쪼개기  
(Breaking the middle Matzah)



야카츠는 마짜 자르기란 의미로 테이블 위에 있는 세 개의 무교병 가운데서 중간 것을 반으로 나누는 행위입니다.

# Yachatz

6. 유월절 만찬의 중요한 부분 (마짜 가방: The Matzah Tash)



마짜 태쉬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주머니(가방)를 말하며, 각 가방에는 하나의 마짜(무교병) 크래커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가운데 있는 마짜를 꺼내어 반으로 쪼갠 후에 그중한 조각을 세마포 손수건으로 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마포로 싸지 않은 다른 조각을 나중에 위하여 마짜 태쉬에 도로 넣습니다. 우리는 세마포에 싼 마짜 조각을 묻거나 저녁에 숨겨 놓습니다. 왜 우리는 가운데 있는 마짜를 쪼갤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세마포 손수건으로 쌀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묻은 후에 나중에 발견되도록 할까요?

The Matzah Tash is a bag divided into three sections each containing one Matzah Cracker. What does it represent? Next, we take out the middle Matzah, break it in half and wrap one half in a linen napkin. We then place the other half back in the Matzah Tash for later. We take the Matzah in the linen napkin and "Bury" it or hide for later in the evening. Why do we break the middle matzah? Why do we wrap it in a linen napkin? And why do we bury it only to find it later?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한 냅킨 안에 싸여있는 세 덩어리의 무교병을 연합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연합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가운데 덩어리를 자릅니다. 이 자르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무교병의 한 쪽 조각은 냅킨에 싸서 베개 밑에(또는 어디엔가) 숨겨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사되셨음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부러진 중간 마짜의 큰쪽)을 아피코만(Aficoman)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나머지 조각을 다시 냅킨에 싸입니다.<sup>12</sup> 식사가 끝날 무렵에 아버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피코만을 찾게 하고 찾아낸 아이에게 선물을 줄 것 입니다.

<sup>12</sup> 오늘날 전세계의 유대인들이 이 고대 의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는 단지 "전통" 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 이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7. 왜 이 밤이 다른 밤들과 다른가요?  
(Why i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 nights?)

네 가지 질문들<sup>13</sup>: 아이가 질문합니다  
The Four Questions:

# Why ?

첫째,

“다른 날 저녁에는 밥(빵)과 마짜를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왜 마짜만 먹어야 하나요?”  
(Why on this night do we only eat Matzah?)

둘째,

“다른 날 저녁에는 모든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쓴 나물만 먹어야 하나요?”  
(Why on this night do we only eat Maror?)

셋째,

“다른 날 저녁에는 야채를 한 번도 소금물이나 하로셋에 담가 먹지 않는데  
오늘 저녁은 두 번씩이나 담가 먹어야 하나요?”  
(Why do we dip our food twice?)

넷째,

“왜 오늘 저녁에는 반쯤 기대어 식사를 해야 하나요?”  
(Why do we eat reclining or sitting?)

8. 매기드 - 말하기 (Magid - The Telling of the story)

출애굽기 1~12 장 (Exodus Chapters 1-12)

아이의 아빠가 일일이 대답한다.

아이의 아빠가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들려 준다.

# Maggid

아버지가 이야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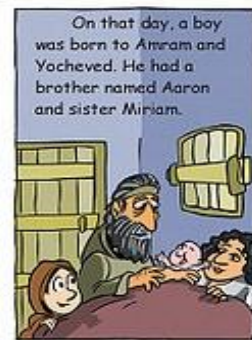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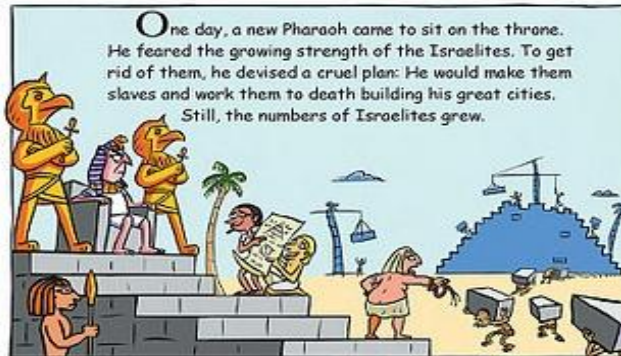
<sup>13</sup> 과거를 기억하며 유월절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출애굽사건을 재현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인도자)의 답변의 형식을 따른다.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부터 네 개의 질문을 던진다.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세번, 신명기에서 한 번 모두 네 번 아버지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출 12:26; 13:8; 13:14; 신 6:20).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고안된 질문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 중 야곱이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미쯔라임)에 종으로 팔려 갔단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 한편 야곱과 그 아들들은 큰 가뭄이 닥쳐 먹을 것이 없어지자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지. 마침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되었단다.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요셉을 아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고센의 좋은 땅을 주었지.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번성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



그 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 그것 때문에 파라오는 겁이 났지. 그래서 그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힘이 센지 보아라! 언젠가 그들은 우리의 적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고야 말 것이다."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힘든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지.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대를 모으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 또 감독관들을 세워서 엄하게 다스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노동을 견디면서 파라오를 위해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없애 버리려고 했어.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바로 강물에 던져 버리도록 했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던 거야. 그 때 레위 지파에 사내아이를 낳은 한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을 살려 보려고 석 달 동안이나 몰래 키웠어.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담아 강물 위에 띄웠어.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갈대 상자 속의 아기는 목욕을 나온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 아기는 공주에 아들이 돼. 그리고 공주는 모른 채 하며 모세의 친 어머니를 유모로 들이게 되고. 결국 모세는 친 엄마의 젖을 먹고 크게 된단다."



"모세는 자라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 겁이 난 모세는 미

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게 되지. 한번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거야.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파라오를 찾아



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그런데 파라오는 번번이 말을 듣지 않았어. 오히려 찾아갈 때마다 더 강박해졌지. "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의 칼과 부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두려움 없이 순종했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하나하나 이집트에 임했었던 거야. 이집트(미쯔라임) 사람들이 섬

겼던 10 가지 신(神)들을 통한 재앙들이 바로 그것인데 성경에 자세 히 기록되어 있어.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 말할 때마다 각자 잔에 있는 축복의 포도주를 새끼 손가락으로 조금씩 떨어 낼 거야. 그 이유는 파라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집트인들이 겪었을 고통과 그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조상이 당했던 고통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지. 손가락을 쓰는 이유는 출애굽기 8장 19절에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모세의 기적을 모방할 수 없게 되자 '이는 하나님의 권능(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 손가락 אֶצְבַּע אֱלֹהִים)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관련이 있단다.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열 가지 재앙을 말해 보자구나"





9. 두 번째 컵 채우기 (Fill up the 2nd Cup)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컵을 채웁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마시지는 않습니다.  
We now fill Second Cup –But Do Not Drink



10. 10 가지 재앙 (Ten Plagues)

우리가 10 가지 재앙을 소리 내어 말할 때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재앙을 소리 내어 말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을 두 번째 컵에다가 담갔다가 뺍니다. 이것은 축복과 기쁨의 잔에서 한 방울의 기쁨이나마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As we begin to recite the ten plagues we don't want to rejoice in the suffering of the Egyptians.  
So, after we say each plague out loud we will dip our finger into our second cup of wine removing just one drop of Joy.

→인도자(아버지)가 이집트에 임하였던 열 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재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포도주 잔에 새끼 손가락을 담갔다가 컵 받침 (혹은 종이 티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sup>14</sup>



Dam	Blood (피)
Tzfardeyah	Frogs (개구리)
Kinim	Lice (이)
Arov	Flies/Beetles (파리)
Dever	Cattle disease/ Blight (가축의 죽음)
Sh'hin	Boils (악성 종기)
Barad	Hail (우박)
Arbeh	Locusts (메뚜기)
Choshech	Darkness (흑암)
Makat B'horot	Slaying of the First Born (처음 난 것의 죽음)

Hebrew
דָּם
צַפְרַדְיָה
כִּנִּים
עֲרוֹב
דְּבַר
שְׁחִין
בָּרָד
אַרְבֵּה
חֹשֶׁךְ
מַכַּת בְּכוֹרוֹת

<sup>14</sup> 이와 같은 일은 유대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과거의 사건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현재의 유대인들에게 늘 새로운 출애굽으로 경험된다. 이는 바로의 요술가들이 모세의 기적을 모방할 수 없게 되자 '이는 하나님의 권능(히브리어 원문은 손가락)이나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참석자들 모두:

따라서 유월절은 주님(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편 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자, 또한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주님(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양을 취하되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리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너희는 그것을 급히 먹으라. 이것이 주님(여호와)의 유월절 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주님(여호와)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밤중에 주님(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주님(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더라”(출12:1-13, 28-31).

참석자들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분께서는 복되십니다. 주께서는 속박을 끊어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 시키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14).



11. 다이예누<sup>15</sup> :자유함으로 가는 한 발걸음을 경축함  
(Dayeinu: "It would have been enough")

All sing



DAYEINU



I - lu ho-tzi ho - tzi - a - nu, ho - tzi a - nu mi - mitz - ra - yim,  
 ho - tzi - a - nu mi - mitz - ra - yim da - yei - nu.  
 (Chorus) Da - da - yei - nu, da - da - yei - nu, da - da - yei - nu, da -  
 yei - nu da - yei - nu da - yei - nu. yei - nu da - yei - nu.

דינו אילו הוצי הוציאנו, הוציאנו ממצריים, הוציאנו ממצריים  
 דינו אילו נתן נתו לנו, נתן לנו את השבת, נתן לנו את השבת  
 דינו אילו נתן נתן לנו,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דינו אילו נתן נתן לנו, נתן לנו את ישראל, נתן לנו את ישראל  
 דינו אילו נתן נתן לנו, נתן לנו את משיח, נתן לנו את משיח

Ilu hotzi hotzi-anu, hotzi-anu mi-mitzraim, hotzi-anu  
 mi-mitzraim dayeinu  
 일루 훗찌 훗찌-아누, 호찌-아누 미-미쯔라임, 호찌-아누  
 미-미쯔라임 다이예이누

Chorus:  
 Day, dayeinu (3x), dayeinu dayeinu (dayeinu)  
 Day, dayeinu (3x), dayeinu dayeinu!  
 다이 다이 예이누 (3x), ~ 다이예이누 다이예이누 다이예이누  
 다이 다이 예이누 (3x), ~ 다이예이누 다이예이누!

<sup>15</sup>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며 '다이예누'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어린이들은 신나는 곡조와 간단한 가사때문에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라는 내용의 노래이다.



Ilu natan natan lanu, natan lanu et ha-Shabbat, natan lanu et  
 ha-Shabbat dayeinu  
 일루 나탄 나탄 라누, 나탄 라누 옛 하-샤밧, 나탄 라누 옛  
 하-샤밧 다이에이누  
*Chorus: (etc.)*

Ilu natan natan lanu, natan lanu et ha-torah, natan lanu et  
 ha-torah dayeinu  
 일루 나탄 나탄 라누, 나탄 라누 옛 하-토라, 나탄 라누 옛  
 하-토라 다이에이누  
*Chorus: (etc.)*

Ilu natan natan lanu, natan lanu et Mashiach, natan lanu et  
 Mashiach dayeinu  
 일루 나탄 나탄 라누, 나탄 라누 옛 메시아흐, 나탄 라누 옛  
 메시아흐 다이에이누  
*Chorus: (etc.)*

헤이!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낭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If He had brought us out of Egypt it would have been enough  
 그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If He had given us the Shabbat, it would have been enough  
 그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If He had given us the Torah, it would have been enough  
 그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If He had given us the Messiah, it would have been enough





12. 왜? 어린양, 무교병, 마로르, 하로셋인가에 대한 설명  
(Explanation of why Lamb, Matza, Maror and Charoset?)

(1) 소금물 :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 땀방울 그리고 기적으로 건넌 홍해의 짠 물을 기억하며 카르파스를 짝어 먹습니다.

(2) 쓴 나물(마로르) / 양고추냉이: horseradish, 하제레트: Horseradish Root (쓴 뿌리 식물) :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쓰디쓴 시절을 기억하는 음식입니다..

(3) 카르파스(파슬리) :

파슬리나 셀러리, 양상추 등은 봄이 왔다는 의미에서 생명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4) 하로셋 :

사과 으깬 것과 무화과, 건포도, 대추야자, 호도, 잣 등 견과류를 가루로 만들어서 으깬 것에 꿀, 포도주 등을 부어 계피 등을 섞어 만든 소스로서, 유대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감독관의 채찍아래서 진흙으로 벽돌 굽기를 하던 것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을 의미합니다. 이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달콤함은 심지어 노예 생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로셋이란 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학자들에 따라선 진흙을 뜻하는 헤레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로셋의 색깔이 진흙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쓴 나물을 하로셋에 짝어 먹습니다

(5) 양고기(구운뼈) :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밤에 잡아서 먹었던 고기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올리는 양의 정강이뼈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상징하며, 유월절 식사에서 먹고 남은 양의 뼈는 꺾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 구운 뼈는 유대인 조상들이 성전에 희생 제물로 그리던 유월절 어린양을 상징합니다.

(6) 삶은 달걀(베이자):

정강이 뼈와 삶은 달걀은 제 2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며 성전의 순례자들에 의한 축제의 희생 제사를 상징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며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 제사를 기억합니다

(7) 무교병(마짜):

유월절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곡식으로 만든 식품은 마짜만이 허용됩니다. 빨리 이집트에서 나오느라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떡입니다. 긴박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마짜(무교병)은 유월절 식탁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보통 마짜 세개를 포개어 접시에 올려 놓고 냅킨으로 덮어 놓습니다. 마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월절 첫날 저녁에 먹는 유월절식탁을 위한 마짜와 유월절이 끝나기까지 일주일간 평소에 먹는 보통 마짜입니다. 유월절 첫날 저녁에 쓰기 위하여 만든 마짜를 가리켜 '계약의 마짜(마짜 쉘 미쯔바)', '보호받는 마짜(마짜 슈무라)' 라고 합니다.

(8) 붉은 포도주 :

유월절에 흘린 어린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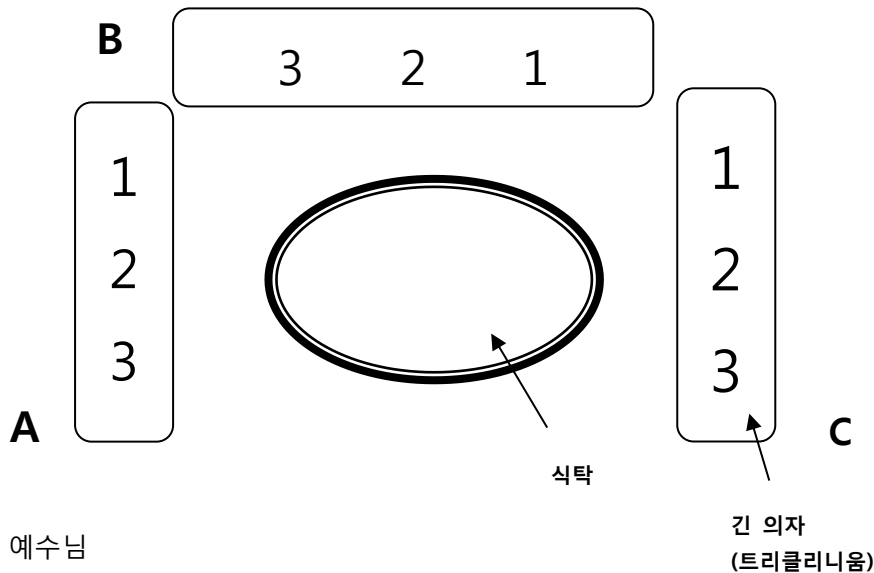




13. 왜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기대어서 먹는가?  
(Why do we eat the Passover Meal reclining?)

베개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풍습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자유와 독립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사람과 로마 귀족들도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유대인들이 외부로부터 침략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풍습을 받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신 유월절 잔치(요한복음 1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 90도 방향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좌석 배치도



- A1: 예수님
- A2: 요한
- B3: 가롯 유다
- C: 베드로

참고 (열린다 성경)

긴 의자를 사용할 때는 음식을 집기 위해서 앞으로 몸을 숙여야 했다 그래서 왼쪽 팔 밑에 쿠션을 바친 채 머리는 식탁 쪽으로 두고 누워서 오른쪽 팔로 집어 먹었다. 이런 방식의 식사 형태를 고려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상황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눅 7:36-50)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대는 어땠을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식사장소는 커다란 다락방이었다. 장소가 넓었다면 긴 의자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모습을 전하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 예외 없이 ‘눅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케이마’ keima를 사용한다. 막 14:18, 눅 22:27, 요 13:23,28 작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정좌를 하고 식사했다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로마시대에는 평민은 앉아서 식사하고 시민은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긴 의자에 누워 식사하면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식사도중에 대화하려면 상대의 가슴을 기대고 누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자세와 식사대의 상석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시대에는 식사 참석자들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배치했다. 대체로 주인은 A1 자리에 앉았고, B3은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상석이었다.

요한 복음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 즉, 요한이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해 누웠다고 소개한다. 요 13:23 그 설명대로라면 예수님은 상석에 있지 않았다. 위의 그림을 보면 B3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누워 오른손으로 식사하면 누구도 그에게 기대 수 없다. 따라서 B3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식사 모습을 보면 가장은 늘 A1의 자리에 앉는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 식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제자의 자리는 당연히 A2가 된다. 그래야 가슴에 기대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베드로가 A3에 있었다면 요한에게 배반자의 정체에 관해서 묻도록 나지막이 부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건너편 C좌석 어디엔가 있었다고 해도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머릿짓’을 해서 부탁 했기 때문이다. 요13:24

유다의 자리는 의외로 쉽게 밝혀진다. 예수님은 빵 조각을 국물에 찍어서 유다에게 건넸다. A1에서 빵을 쉽게 건네 받을 수 있는 자리는 B3, 즉 상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곳이 유다의 자리가 맞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배려한 것이었다.



14. 두 번째 컵을 축복하기-구원의 컵 (Blessing over the 2nd Cup-The Cup Deliverance)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borei p"ri ha-gafen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s the fruit of the vine



다 함께: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Drink Second Cup of Wine

# Rachtzah



15. 손씻음 (Washing Hands)

발을 씻는 것은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예식 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דשנו במצותיו  
וצונו על נטילת ידיים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shanu mitzvotav v"tzivanu al netilat yadaim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미쯔보타브 베찌나누 알 네틸라트 야다임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사 손 씻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by his commandments, and has commanded us  
concerning the washing of the hands

**다 함께:** 세수식 또는 세족식을 시행한다.



16. 어린양, 무교병, 마로르를 먹는 축복 (Blessings for eating Lamb, Matza and Maror)

어린양을 향한 축복-유월절 어린양은 누구인가?  
(Blessing for the Lamb-Who is the Passover LAMB? )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דשנו במצותיו וצונו על אכילת הפסח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shanu b"mitzvotav  
v"tzivanu al achilat HaPesach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쯔보타브 베찌바누 알 아힐랄 하페사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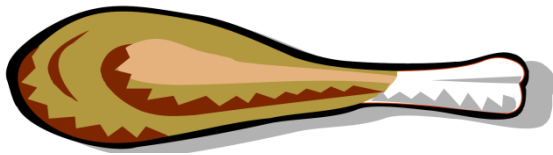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사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by His commandments, and has commanded us to eat the Passover



아버지가 양고기를 들어올리며 낭독합니다:

이 양고기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이집트에서 도살되었던 양을 상징합니다.

참석자들 모두: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의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주님(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 하셨느니라’(출12:27).

아버지가 낭독하는 동안 양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재앙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각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우슬초 다발을 피에 담갔다가, 양고기를 먹은 자기집의 문설주와 상인방(문 위쪽의 들보)에 바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문에 십자가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신 주님(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을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음식을 먹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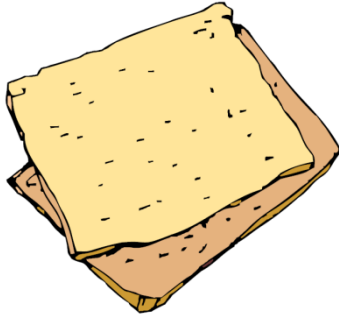
다 함께: 양고기를 먹는다



마자를 향한 축복<sup>16</sup> - 마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Blessing for the Matzah-What does the MATZAH represent?)

# Motzi Matzah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דשנו במצותיו וצונו על אכילת מצה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shanu b"mitzvotav v"tzivanu al achilat matzah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쯔보타브 베찌바누 알 아힐랄 마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사 마자를 먹게 하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by His commandments, and commanded us to eat matzah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마자에 있는 흠과 구멍은 메시아이신 예수아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마짜에서 창 자국과 멍,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 그분의 몸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마자를 먹는다

마로르를 향한 축복 -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가?  
(Blessing for the Maror-Why do we eat bitter HERBS?)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דשנו במצותיו וצונו על אכילת מרור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shanu b"mitzvotav v"tzivanu al achilat maror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쯔보타브 베찌바누 알 아힐랄 마로르

<sup>16</sup> 모짜: 곡물로 만든 음식에 축복한다. (특히 마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마짜: 마자를 축복하고 이를 나누어 먹는다.



# Maror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사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d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by His commandments, and commanded us to eat the bitter herb



아버지는 쓴 나물을 들어올리며 낭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쓴 나물입니다.

참석자들 모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혹독하게 억압받았을 때의 쓰라림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1:14).

아버지가 낭독하는 동안 쓴 나물을 참석자들에게 돌립니다:

이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이집트 노예 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쓴  
 나물을 먹는 것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했던 생활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시셨던 쓴 잔의 상징입니다.

**다 함께:** 쓴 나물을 입에 넣고 충분히 쓴 맛이 온 입을 감쌀 때까지 씹습니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유월절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도살당한 양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 죄를 짊어지  
 고 희생되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양 또한 기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  
 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주님(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  
 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니..... 그가 자기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하였  
 느니라” (사53:1-12).

참석자들 모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1: 29)



17. 힐렐 샌드위치 (Hillel Sandwich)

# Korech



힐렐<sup>17</sup>은 예슈아 이전에 살았던 랍비였습니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음식(유월절 양, 마짜, 쓴나물)을 하나의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로셋입니다. 하로셋은 우리에게 진흙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그러나 하로셋은 사과와 계피와 꿀로 만듭니다. 노예생활이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입에서 이렇게 달콤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짜와 유월절 양, 마로르 그리고 하로셋을 먹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과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명령을 지킵시다.

Rabbi Hillel lived before the time of Yeshua. It was his tradition to incorporate all three

commandments of the Passover Seder in one sandwich. He would use however a fourth ingredient. It is called Charoset. Charoset reminds us of the mortar we used with the the bricks we would make; however it is made with apples, cinnamon and honey. Though our slavery was bitter it is now sweet in our mouths as our God has saved and delivered us from the hand of Pharaoh. So, let us now eat the Matzah, lamb, Maror with the Charoset thus fulfilling God's commandment for us to eat unleavened bread, lamb and bitter herbs.

다 함께: 하로셋을 넣은 힐렐 샌드위치를 먹읍시다.

# Shulchan Oreich

18. 저녁식사 (Dinner is Served)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히 맛있게 준비된 유대인 최고의 요리 유월절 음식<sup>18</sup>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Main Dish)을 다 먹은 후 아피코만은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보관했다가 후식으로 먹읍시다.

# Bare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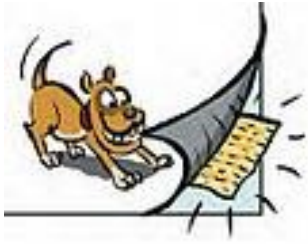
식사가 끝난 후에 감사기도  
(Prayer of Thanksgiving after the meal)



<sup>17</sup>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던 시절 위대한 학자 힐렐에 의해 시작된 관습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 힐렐 샌드위치라 부른다.

<sup>18</sup> 술한 오레흐: 페삭 축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론 이 음식에는 효모를 사용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아쉬케나짐은 식사 첫 음식으로 생선 스프에 말짜 볼을 넣어 먹는다. 이 때는 구운 닭이나 칠면조가 주요리가 된다.





19. 아피코만 찾기 (Search for Afikoman)

# Tzafun

아피코만 찾기: (아이들에게 시킵니다.)<sup>19</sup>

이제 모든 아이들은 아피코만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sup>20</sup>

어떤 아이든 먼저 그것을 찾는 아이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찾은 마짜 조각이 숨겨놓은 마짜 조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운데 주머니에 있는 마짜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우리는 부서진 두 조각을 들고 그것들을 함께 맞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만찬은 다시 진행됩니다.

Search for Afikomen: Now all of the children will begin to search for the Afikoman. Whichever child finds it first will win a prize. To make sure it is the correct piece of matzah we must remove the middle matzah once again. We hold up the two broken pieces and bring them together. Only after everyone is certain the two pieces are made whole do we continue with the Seder.

아이는 아피코만을 팔고 선물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피코만을 꺼내 들고 낭독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행사가 시작될 때 숨겨놓은, 잘라놓은 무교병 조각입니다.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와 물로만 만들어 졌습니다. 반죽이 완성되었을 때 무교병은 뾰족한 기구에 의해 찢리고 칼 자국이 납니다. 이사야53장 5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빵조각이 의식 초기에 떼어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조각이 천에 싸인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천에 싸이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게 밑에 숨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상징합니다(마 27:57-60).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베개를 치우는 것은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석자들 모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니...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눅24:1-6)

아버지는 아피코만을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참석자들에게 한 명씩 건네줍니다. (참석자들은 아피코만을 아직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점입니다(눅22: 19).

<sup>19</sup> 유월절(페썬) 세데르가 전승되게 하기 위함이다.  
<sup>20</sup> 누구든지 상대방의 아피코만을 훔칠 수 있다. 특별히 아이들은 아버지(인도자)의 아피코만을 훔치려고 노력한다. 잃어버린 아피코만을 다시 찾으려면 무엇인가 보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아버지의 아피코만을 훔쳤다가 아버지가 자기의 아피코만을 찾을 때 선물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선물을 약속하고서 자기의 아피코만을 찾는다. 따라서 마짜(무교병)를 부러뜨린 후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짜(무교병)를 남이 못 보는 곳에 숨기고자 애쓴다. 보통은 손 씻으러 갈 때 다른 사람의 아피코만을 훔친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월절 식사 의식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관습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참석자들 모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가 축복기도를 합니다:

(인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에서부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모두들 그 무교병 조각을 먹습니다.<sup>21</sup> 아피코만을 먹으면 유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20. 무교병과 세번째 컵-친교 Luke 22:14-20 HaMotzi (communion)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המוציא לחם מן הארץ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ha-motzi lechem min ha-aretz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찌 레캠 민 하-아레쯔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땅으로부터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s forth bread from the earth

세 번째 잔을 축복하기 – 구원의 컵 또는 브릿 하닷샤<새 언약의 성찬>

Blessing over 3rd Cup-The Cup of Redemption or “Brit Chadasha”  
(New Covenant communion)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sup>21</sup> 미쉬나에 보면 유월절 식사 후에는 아피코만을 남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월절 밤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은 반드시 유월절에 제물로 바친 희생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 성전이 파괴된 후 더 이상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어졌다. 자연히 제물로 바친 양을 먹는 일도 없어졌다. 성전 시대에는 제물로 바친 유월절 양을 마지막 음식으로 먹었으나 오늘날은 아피코만이 마지막 음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된 후 아피코만은 성전에 바쳤던 희생양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아피코만을 먹으며 성전에 제물로 바쳤던 희생양을 기억한다.



borei p"ri ha-gafen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s the fruit of the vine

**(구원의 잔)**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유월절 의식의 이 시점에서는 한 잔의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에서 부여되는 세 번째 잔의 포도주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11장).

아버지는 잔을 들며 말합니다: (모두 함께 잔을 높이 든다)

이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유월절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장)

(이것이 성만찬의 본래 모습이자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 함께:** 모두들 구원의 잔을 마십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 시편 중의 할렐(Hallel)을 노래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가복음 14:26절에서 유월절 만찬을 끝내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21. 할렐 -찬양 (Hallel – Praises)**

시편 113~118 편을 읽는다 (Read Psalms 113 -118)  
2~3 개의 워십송을 부른다 (Sing 2-3 Worship Songs)

*Hallel*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에 다스리심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 할렐(Hallel)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오 주님(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참석자들:**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열방은 이렇게 말합니까?

**참석자들:**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참석자들:** 그분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참석자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들에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참석자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겐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참석자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겐 손이 있지만 느낄 수 없으며,

**참석자들:** 발이 있지만 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만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참석자들:** 그것들을 믿는 자들 또한 그리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 이스라엘아! 주님(여호와)을 신뢰하라!

**참석자들:**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라.

**아버지:** 주님(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 하시리로다.

**참석자들:** 그분께서는 주님(여호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리로다.....

**아버지:** 주님(여호와)께서 너희의 수효를 늘리시기를 원하노라.

**참석자들:** 너와 너의 아이들 모두에게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너희에게 주님(여호와)의 축복이 내리기를,

**참석자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아버지:** 주님(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참석자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 주님(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라.

**참석자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버지:**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참석자들:**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아버지:** 주님(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참석자들:** 우리 눈에 경이로운 일이로다.



**아버지:** 이날은 주님(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참석자들:**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아버지:**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참석자들:** 주님(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아버지:** 주님(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참석자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도다.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에는 바다와 같은 노래가 넘쳤고,

우리의 혀에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무수한 즐거움이,

우리의 입술에는 수평선의 너비만큼이나 넓은 찬송이 흘러 나왔지만,

우리의 눈은 해와 달처럼 빛났고,

우리의 손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활짝 펼쳐졌으며,

우리의 발은 암 사슴처럼 가벼웠지만, 그럴지라도 오,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의기양양하게)말합니다:** “우리는 어린양의 피로써 구원받았다!”

**참석자들 모두:** “대적의 손에서 구원 받았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참석자들 모두:** “속박은 끊어졌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참석자들 모두:**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복되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3~118<sup>1</sup>

[이 안내물의 맨 뒷부분 참조]

유월절 노래

유월절식사 때에 부르는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유월절을 더욱 실감나게 음미할 수 있습니다.

All sing

# Avadim Hayinu

Allegro moderato

Traditional  
Arr: E. Kalendar

The musical score for 'Avadim Hayinu' is presented in a standard format with piano accompaniment and vocal lines. The tempo is marked 'Allegro moderato'. The score includes the following lyrics in Korean:

A - va - dim ha - yi - nu ha - yi - nu a - ta b' - né cho - rin - b' -  
né cho - rin a - va - dim - ha - yi - nu a -  
ta a - ta b' - né cho - rin - a - va - dim -  
ha - yi - nu a - ta a - ta b' - né cho - rin b' - né cho - ri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bass line and chords that support the vocal melody.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D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아바딤 하이누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Allegro

Avadim hayinu hayinu,  
 아바딤 하이누 하이누  
 atah b'nei chorin, b'nei chorin.  
 아타 브네 호린 브네 호린  
 Avadim hayinu, atah, atah b'nei chorin.  
 아바딤 하이누 아타 아타 브네 호린  
 Avadim hayinu atah atah b'nei chorin b'nei chorin.  
 아바딤 하이누 아타 아타 브네 호린 브네 호린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22. 네 번째 컵을 축복하기 – 완성의 컵  
(Blessing over the 4th Cup–The Cup of Completion )

#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borei p"ri ha-gafen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하펜



오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께서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s the fruit of the vine

**다 함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 함께:** 네 번째 잔을 함께 마십니다- 완성의 컵

**모든 참석자들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당신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23.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sup>22</sup> (Next Year in Jerusalem !)

# Nirtzah

아버지가 낭독합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24:52-53).

모든 참석자들이 즐거이 외친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

#### All sing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 לשנה הבאה בירושלים

L'shanah haba-ah (2x), l'shanah haba-ah birushalayim.  
 L'shanah haba-ah (2x), l'shanah haba-ah birushalayim.  
 L'shanah haba-ah, l'shanah haba-ah birushalayim.  
 L'shanah haba-ah, l'shanah haba-ah birushalayim

라산나 하-바-아 비-루살-라임  
 Next Year in Jerusalem

[이것은 유월절 행사를 끝내는 유대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와 다르게 마무리 해도 무관합니다]

**LaShanah  
 Haba'ah  
 BeY'rushalyim  
 Next Year  
 In  
 Jerusalem!**



<sup>22</sup> '레사나 하바아 베루샤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노래를 부름으로 모든 유월절 식사의식을 끝맺는다.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그들의 꿈을 이 노래를 통하여 표현해 왔다.



## 편집 후기 (Editorial notes)

먼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고 편집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혜진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직접 무교병(맛짜)과 하로셋을 만들고 또 예쁜 사진과 함께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최주영, 서경옥 자매님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작은 책자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각 가정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깊이 참여하시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 받은 자들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11. 4월 고난 주간

힐피플 형제 채규영



## 부 록 (Appendix)

### 무교병 : 맛짜(Mazzah)만들기

이번 유월절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사다가 쓸 수도 있지만 ^^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만드는 시간도 짧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무교병을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유월절 만찬 때는 무교병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길 적극 추천드려요,

예린,예준맘 @@



**재 료:** 박력분 밀가루 1 컵 1/2, 물 1/2 컵, 소금 3/4 티스푼, 빵칼, 밀대

**유의점 :** 이것은 순수한 밀가루를 반죽 시작 후 18분 이내에 불에 넣고 굽기 시작해야 하는 것 이예요.



**만드는 법:** 마짜 반죽은 재료 볼에 밀가루와 소금을 체에 내린 후 박력분 소금 순서대로 넣어 섞은 뒤 물과 섞어 주세요, 물은 한번에 다 넣지 말고요 반죽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반죽이 질어지는 것을 염두해두고 물의 양은 반죽시 질기를 보아가며 조절해야해요, 너무 많이 치대면 끈기가 생겨 안돼요, 반죽 덩어리를 만드는 느낌으로요...



재빠르게 반죽을 마친 뒤 윗면이 마르지 않게 비닐이나 랩으로 살짝 덮어두어요



마짜 만들 덩어리를 오븐 또는 후라이팬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나눈 뒤 손으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등글려준 반죽을 손바닥으로 평평하게 눌러주고 밀가루를 넉넉히 뿌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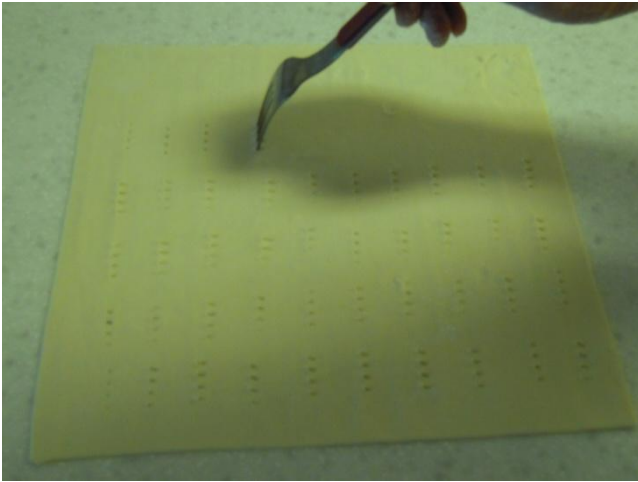


1/8 인치(3mm) 두께로 밀어 주었어요 이 때 유의할 사항은 얇게 밀는 것이 아무래도 맛난 무교병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얇게 밀면 뭉 때 반죽이 찢어 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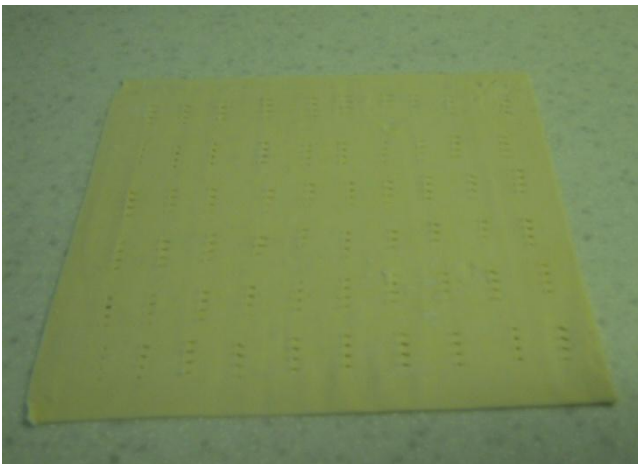
이 빵은 본래 직경 30 센티미터의 원형이었으나 지금은 한 변이 10 인치(25cm) 정도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원형으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10inch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마짜에 있는 흠과 구멍은 메시아이신 예수아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라고 해요.



반죽하는 동안 미리 오븐은 170도로 예열하고요,,  
180도에서 10~15분간 구워주면 완성~~  
(오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짬~! 완성된 '마짜' 예요,

반죽 할 때, 포크로 못자국 낼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유월절의 기쁨이 가득하길,,,기도해요~



### CHAROSET 만들기

유대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감독관의 채찍아래서  
 진흙으로 벽돌 굽기를 하던 것을 의미하는 하로셋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 맛은 아주 훌륭하고 달콤해요,  
 그래서인지 이 하로셋의 달콤함은 심지어 노예 생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배푸심이라 믿는 다고 해요,  
 이 하로셋은 유월절 세데르 접시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요  
 예린,예준맘 @@

**재료:** 사과 1 개, 배 1 개, 바나나 2 송이,  
 호두, 땅콩, 건포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건 대추야자, 건 크린베리, 건 블루베리  
 꿀,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과,  
 호두,포도주는 가장 기본적인 CHAROSET 의  
 재료이고  
 다른 재료들은 각 나라마다 그곳에서 나는  
 재료들을 섞어 사용할 수 있어요  
 무화과, 잣 등의 견과류를 섞어 만들어도 좋아요





저희는 작년에 유월절을 함께 보냈던 유대인 목사님에게 TIP 을 얻어,, 작년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만드는법 :



사과, 배, 바나나를 적당한 크기로 썰고 건포도, 대추야자, 호두, 땅콩 등 견과류는 작게 잘라 볼에 넣은 뒤 푸드 프로세서로 갈아주세요.



다른 재료를 첨가하더라도 사과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할 듯 해요.

사과가 기본이 되어야 제맛인 이유도 있고 또 끓이면서 사과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니깐요.

으깬 것에 2분의 1 cup 레드 와인이나 포도 주스 그리고 꿀, 계피 가루 등을 넣어 함께 잘 혼합해서 저어 주면서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끓여 주시면,, 끝~^^



참고: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기도 갈색을 띠게 설정해야 하며  
예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정말 진흙과 같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 제조법은 Seder 테이블이나 인원수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 할 수 있어요,  
양이 넉넉해 보관해 두셨다 드셔야 한다면 끓였다 식혔다를 세번 반복해 주세요,  
우리 린이 준이는 마짜를 하로셋에 찍어 먹는 달콤함을 무척 좋아해요,  
흐뭇하게 유월절은 기다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sup>i</sup> 시편 113편 [개역개정]

1. 할렐루야, 주님(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님(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주님(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4. 주님(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 주님(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도 할렐루야

시편 114편 [개역개정]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주님(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3.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6.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5편 [개역개정]

1. 주님(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9. 이스라엘아 주님(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 아론의 집이여 주님(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 주님(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님(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 주님(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주님(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 주님(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 하늘은 주님(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은 주님(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개역개정]

1. 주님(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 내가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 주님(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주님(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주님(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주님(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주님(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주님(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 주님(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 내가 주님(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주님(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개역개정]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주님(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개역개정]

1. 주님(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 이제 주님(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5. 내가 고통 중에 주님(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 주님(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 주님(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 주님(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 주님(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 못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님(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 주님(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님(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 주님(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주님(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 주님(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주님(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 이는 주님(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는 주님(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 이 날은 주님(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 주님(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주님(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 주님(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28.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 주님(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편 118편

Stephen Hah

A Amaj/G# A7/G F#7

여호와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  
 오와여 구하오니 - 구원하소서 이

Bm7 D/E A E7sus4 E7

원영원하심이 - 라 - 열  
 세은전케하소서 - 주

A Amaj/G# A7/G F#7

방이 -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  
 남의 -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Bm7 D/A G D/E E D/E E7

와의 이름이 - 저희를 꿈으리라 여  
 와의 축복이 - 영원히 함께하리 주

A Amaj/G# A7/G...

오와는 - 내편이시라 - 내게 두려움이전 - 허없으  
 가 심히 - 경책 하셔도 - 죽음에는 불이지 - 않으시

F# Bm7 D/E

리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중에 - 함께  
 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의크신 행사를 - 선포

D/A A D/E E D/E E7 A

게 시네 - 내가 주께 피함이 - 사람을  
 하리라 - 내게 문 열어소서 - 주님의

Amaj/G# A7/G F#7

신뢰함보다 - 방백을 의지함보다 - 더나으니 나의  
 의로운 문을 - 그곳에 내가 들어가 - 감사하리 주가

Bm7 D/E E7 1. A

능력되신 주 - 나의 찬송 나의 구원되 - 시네 - 2여  
 응답하시니 -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 - 리



# 우리에게 향하신

김진호

1.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의 인자 하심이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의 진실 하심이

크 고 크 도 다 크 - - 시 도 다 - -  
 영 원 영 - 원 영 원 하 시 도 다 - -

크 고 크 도 다 크 - - 시 도 다  
 영 원 영 - 원 영 원 하 시 도 다

Copyright (C) 김진호 - Adm. By KOMCA. Used by Permission.

# 갈보리산 위에

G. Bennard

한국찬송가공회 역

1.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라 -  
 2. 멸시 함 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다 -  
 3.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 니 -  
 4. 주가 예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 지 -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 일 세 -  
 귀한 어린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냈도 다 -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일 세 -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 거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 리 -

최후 승리를 얻기까 지 - 주의 십자가 사랑하 리 -

빛난 면류관 받기까 지 - 험한 십자가 붙들것 네 -



# 하나님 어린양 독생자 예수

Chris A. Bowater

올네이션스 역

Musical score for the song "하나님 어린양 독생자 예수" (God, Lamb of God, Only Son, Jesus). The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eight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Chord progression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Lyrics:  
 하나님 - 어린양 - 독생자 - 예-수 -  
 날위해 - 죽으신 - 주 님 -  
 -주홍리 선 - 그보혈 이 - 나의죄 를  
 -정결케 하 네 - 내 영 을 - 고 치 시 네  
 송축 하 리라 - 화목케 하 신 주 -  
 나의 모든죄 - 갓 깨끗하 - 셨 네 -  
 송축 하 리라 - 귀하신 어린양 -  
 모두 절하고 - 모 두 외치 리 라 -

Copyright (C) 1988 Sovereign Lifestyle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죽임 당하신 어린양

고형원

G D/F# C/E G/D C G/B

죽 임 당하신 어린 양 - 모든 족속 과방 언  
 임 당하신 어린 양 - 우리 들을 나라 와

Am D7 G D/F# Em Em/D

백성 과 나라 가운 데서 - 우 리를 피로 사 셔  
 제사 장삼 아 주셨 으니 - 우 리는 주와 함 께

C D7 1. Gsus4 G 2. Gsus4 G

하나 님께 드 리셨 네 죽 리 죽 임 당하신 어-린

Bm Cmaj7 G/B Am D7

양 능 - 려 과 부 와 지혜 힘 과 존귀 와 영광

G Bm C D7 Gsus4 G

찬 송 반 으시 - 기 에 함 당 하신 어 린 양

Copyright (C) 1998 고형원 . Used by Permission.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원제 : 주 나의 모든 것)

Dennis Jernigan

예수전도단 역

F C7E Dm F/C F/A Bb F/C CF C7

1. 약 할 때 강 함 되 시 네 나의 보배 가 되 신 주 주 나의 모 든 것 -  
 2. 십자가 죄 사 하 셨 네 주 님의 이름 찬 양 해 주 나의 모 든 것 -

F C7E Dm F/C F/A Bb F/C C Bb/F F Bb/C

주 안에 있는 보물 을 나는 포기 할 수 없 네 주 나의 모 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고 나의 빈 잔 을 채우 네

F C7E Dm F/C F/A Bb F/C C 1. F C7 2. F

예 수 어 린 양 존 귀 한 이 름 - 름

Copyright (C) 1991 Shepherd's Heart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약한 나로 강하게

##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Reuben Morgan

영동제일교회 역

C G C F Am  
약한-나 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G C G C Dm G C  
눈먼-날 볼 수있게 주내게 행 하셨네

C G Am F C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 한 어린양

Am G Am G C G C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호-

<sup>2</sup>C G C G C F Am  
네 내가-건너 야할강 거기서 내 죄씻겼네

Gsus4 C G C Dm G C  
이제-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C G C F Am  
깊은-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Gsus4 C G C Dm G C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자 유 주셨네



#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원제 : 비전 / Vision)

고형원

Musical score for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We gathered before your throne). The score is in G major, 4/4 time, and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 하 내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우린 구원 받았네 /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 린양계있도다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 린양계있도다".

Copyright (C) 고형원 . Used by Permission.

# 우리 함께 기뻐해

Gary Hansen

예수전도단 역

Musical score for "우리 함께 기뻐해" (Let's rejoice together). The score is in G major, 4/4 time, and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가다 스 리 네 /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가다 스 리 네".

Copyright (C) 1982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Under the blood

Martin J. Nystrom & Rhonda Gunter Scesi

예수전도단 역

D/E A Dadd Esus<sup>4</sup> E A Dadd Esus<sup>4</sup> E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열렸네 -

C F/C C G/C F/A Dm Esus<sup>4</sup> E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 -

A Dadd Esus<sup>4</sup> E A Dadd Esus<sup>4</sup> E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

F#m C#m/E D A<sup>2</sup>/C# Bm<sup>7</sup> D/E E A D/E E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아-래있네 -

A A/C# D D/E E A F#m<sup>7</sup> Bm<sup>7</sup> Esus<sup>4</sup> E

난 주보혈아-래있네 - 그 피로 내 죄-사했-네 -

F#m C#m D A/C# Bm<sup>7</sup> Bm<sup>7</sup>/A Gmaj D/E E/G#

하 나 너의 긍휼 날 거룩케 하시었네 -

A A/C# D D/E E A F#m<sup>7</sup> Bm<sup>7</sup> Esus<sup>4</sup> E

난 주보혈아-래있네 -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도

F#m C#m D A/C# Bm<sup>7</sup> D/E E A

더 이상 넘어 지지 않네 난 주보혈아-래있네 - -

Copyright (C) 1991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예수전도단. Approved by CopyCare Korea.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Hyesook Kim

Place and Date of Birth: Gangwondo, South Korea, February. 5, 1962

Parent`s Names: Jongsung Lee and Youngjoo Cho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Colligate:	<b>Yonsei University</b>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BSW	Feb 20, 1986
Graduate:	<b>Drew University, the Theological School</b> 36 Madison Ave. Madison, New Jersey, USA	M.Th	May13, 199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yesook Kim

Name typed

Feb 20. 2024

Date